





1

56

54

성도의 빛 5 1983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판장단

스펜서 더블류 킴블
매리온 지 롬니
고든 비 힝클리

십이사도 평의회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하워드 더블류 헌터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톤
브로스 알 맥롱기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화이트
제임즈 에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고문

엠 러셀 벨라드 이세
로렌 시던
렉스 디 피네카
찰스 에이 디데이
조지 피 리
에프 엔지오 부쉬

표지 설명: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마태복음 10: 38-42)

차례

구세주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함엔 엘돈 태너 부대판장.....	1
질 의 응답	7
이해심있는 결혼 반려자테런스 디 울슨.....	11
규칙을 변경시킨 에럴 베닛마이클 오터슨.....	17
황금의 시간아데 지 캅.....	28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진 알 쿡 장로.....	34
날마다 사과 하나씩리차드 엠 롬니.....	46
몰모나드	53
엘리야와 하나님의 권능	54
가장 중요한 것에프 엔지오 부쉬 장로.....	56
믿음, 씨앗 그리고 잭슨의 어머니캐럴린 캄블.....	59
지역 지도자 메시지홍 무광 북 스테이크 부장.....	62
지역 소식	63
해 의 소식	68

성도의 빛 1년 정기 구독료는 3,500원입니다. 일반인의 1권 구독료는 4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80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빛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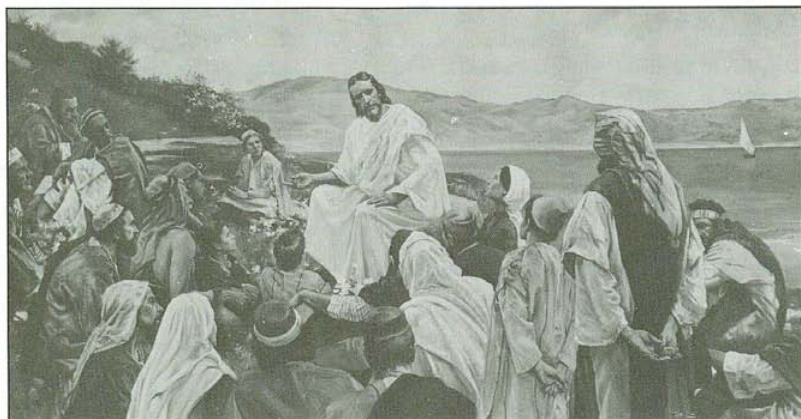
동 권 : 제214호, 제19권 제5호
등 록 : 1967년 10월 4일, 라-932
발행일 : 1983년 5월 1일(월간지)
발행인 겸 편집인 : 유진 피 터
번 역 : 한국 번역 출판부 ☎ 72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좌 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진 수
STOCK NO. PBMA0562K0 PRINTED IN SEOUL, KOREA 5/83

© 1983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편집 소우

International magazine

구세주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함

엔 엘든 태너 부대관장
(1982년 11월 27일 별세)



5 | 1983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법의 날	2 가정의 밤	3	4	5 어린이 날	6 성년의 날 입학	7 서울 스테이크 대회
8 아버지 날 서울 스테이크 대회	9 가정의 밤	10	11	12	13	14
15 스승의 날	16 가정의 밤	17	18	19	20 석가 탄신일	21
22 소만	23 가정의 밤	24	25	26	27	28
29	30 가정의 밤	31				

모든 인류가 그들의 생활 방식을 바꾸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해야 할 필요성이 우리 시대에 이보다 더 컸던 적은 없었습니다. 신문을 읽고, 뉴스 방송을 듣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도 우리는 급변하는 국제 및 국내 정세 또는 이웃이나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의기 소침해지게 됩니다.

“도무지 어디까지 나아가자는 것일까?” 우리는 당황스럽게 질문합니다. 우리를 이러한 상황으로 몰아온 인류의 지도자와 국가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디서 실패한 것일까요?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를 알아보고 그 속에 들어 있는 진리와 일치되지 않는 우리의 생활 방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운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끼쳐 그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생활해야 하는 우리들 개개인에게 부여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들어 왔듯이, 악이 승리를 거둔다면 그것은 선한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세계적으로 회원 수가 500만 명에 이르는 교회에 속한 우리는, 각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대로 생활하면 세상에 훌륭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벌을 받지 않으며 영원히 추방되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 곧 그를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임을 우리는 언제 배우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한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버

우리는
우리의 의로운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끼쳐
그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생활해야 하는
우리들 개개인에게 부여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리셨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와 그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여 그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모든 정성과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구세주께서 성역을 베푸시면서 전하신 몇 말씀을 자세히 살펴 보기로 합시다. 산상수훈 중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낮지 못하면 절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19-20)

같은 산상수훈의 조금 뒤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마태복음 7:12-14)

주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렇게 마치셨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

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마태복음 7:24-29)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가르침에 대한 마태의 기록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루는 주님의 성역의 목적을 주목해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경전을 읽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명을, 그가 것처럼 여러 모로 여러 번 말씀하신 바, “인간에게 불사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모세서 1:39) 이었음을 인식하지 못하겠습니까? 이것은 그와 그의 아버지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의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구세주께서 제기한 모든 가르침은 결국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생을 약속하여 인간이 더 행복하게 되고 더 온전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도록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충실한 자들에게 약속된 축복을 받기에 합당치 못하게 되어 그러한 것을 상속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태의 기록을 읽어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선택된 십이 사도를 가르치시고, 사악한 자에게 회개하도록 경고하시고, 설교와 비유로 대중을 가르치시며,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등, 한 마디로 요약하여 선을 행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조직하셨으며, 배도를 경고하시고, 아버지께서 그에게 분부하신 일을 이루

있으며, 십자가에 달리고, 매장되어 부활하셨던 그 모든 일이 그 자신과 초대 예언자들에 의해 예언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은 다 이루어 졌습니다. 또한 여러 예언자에 의하여 예언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초대 교회에 있었던 것과 같은 조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 함께 복음의 회복과 물론경의 출현을 선포했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조직된 직후,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신앙개조라 하는 것을 요약하셨으며 이는 구세주께서 인간 세계에 함께 거하셨을 때 가르치신 것과 완전히 일치되는 교회의 입장을 요약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신조를 훌륭하게 선언한 신앙개조의 마지막 13조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 진실, 순결, 인자, 유덕 그리고 만민에게의 선행을 믿는다. 진실로 바울의 훈계를 따른다 할 수 있으니, 우리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이미 모든 것을 참아 왔으니,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기를 원한다. 무엇이든지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고 듣기 좋으며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여 마지 않는다.”

이 말씀에서 구현된 것은 구세주께서 그 자신의 생활에 일치시켜 것처럼 담대히 다른 사람들을 가르친 모든 선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개조를 암송시키며, 선교사들은 수첩에 적어 넣으며, 우리는 것처럼 높은 이상을 지니고 있는 조직에 속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므로 친구들과 구도자들에게 정규적으로 그것은 들려줍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우리가 전파하는

원리대로 성실하고도 정직하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생활을 돌이켜 보고 계명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의로운 모범을 보이고 시련의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우리는 거의 정직하다거나, 부분적으로 순결하거나 덕성이 있든가, 또는 마지못해 관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바쳐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중상하고 헐뜯고 험담할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역이나 국가의 정치적인 면에서 우리는 의로운 대업을 옹호하는 선하고 정직한 대표자를 선택하고, 파벌을 조성하지 않고, 만민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선을 위해 함께 일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고 듣기 좋은” 것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15:8-11)

마태는 또한 예수님을 시험하는 바리새인들이 제기한 질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교회 회원인 우리는
 평화를 위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한
 훌륭한 생을 위해,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생활하도록
 극복해 나가며
 그의 계명을 지키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해
 전력 투구해야 합니다.

에 대한 주님의 큰 사랑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인간이 최악에서 구원되어 무덤에서 부활될 수 있도록 주께서 겪으신 고난과 고통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신앙과 행위를 주님께 보여 드릴 것을 온 마음을 다해 열망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구세주의 크신 사랑을 여러분은 느낄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마태복음 23 : 37-39)

교회 회원인 우리는 평화를 위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한 훌륭한 생을 위해,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생활하도록 극복해 나가며 그의 계명을 지키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해 전력 투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네 임무는 더 훌륭한 세상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은 너무나 크고 광대하여 참으로 복잡합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너 자신을 더 훌륭하게 만드는 것이다.” *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태복음 22 : 36-40)

마태복음 23장과 24장을 넘겨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 있을 시련과 재난에 대하여 읽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원의 의미를 이해하고 우리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강조 사항. 가정 복음 교육 토론시에 이러한 요점을 토론할 수 있다.

1. 구세주께서 제기한 모든 가르침은 결국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생을 약속하여 인간이 더 행복하게 되고 더 온전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도록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2. 우리는 충실한 자에게 약속된 축복을 받기에 스스로 합당하게 되는 일을 하지 못하거나 무시해 버림으로써 영원한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는 모험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재조명해 보고 계명을 지킬 것을 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의 정직하다거나, 부분적으로 순결하거나 덕성이 있든가, 또는 마치 못해 관대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온전히 바쳐야 합니다.

4. 우리도 인간이 죄악에서 구원되어 무덤에서 부활될 수 있도록 주께서 겪으신 고난과 고통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신앙과 행위를 주님께 보여 드릴 것을 온 마음을 다해 열망해야 합니다.

토론 지침

1. 구세주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는 중요성에 관한 개인적인 생각과 경험을 이야기한다. 가족들에게 그들의 느낌을 서로 이야기하게 한다.

2. 이 기사 중에서 가족이 큰소리로 읽고 토론할 성경 구절이나 인용문이 있는가?

3. 방문하기 전에 그 집의 가정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이 토론이 더 낫게 될 것인가? 구세주의 가르침에 관하여 정원회 지도자나 감독이 가정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는가?

인용문

우리는 우리의 의로운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도록 생활해야 하는 개인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교회 회원인 우리는 평화를 위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한 훌륭한 생활을 위해...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해 전력 투구해야 합니다.



에드워드 엘 소퍼
미국 남동부 복지 사업
지역 책임자

오늘날 전세계에서는
많은 인류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왜 교회에서는
전세계적으로
굶주림을 해결하고
불쌍한 자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한 운동을
벌이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도 나타나 있는 바 불행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이 밖에도 많은 독자들이 그러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면서, 나는 고통을 더는 가장 훌륭한 도구는 복음 그 자체임을 귀하가 이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에 개종함으로써 그 교훈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들의 회복과 발전이 가속화되어,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사람들의 생활에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참된 진리였으므로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은 1974년에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나는 인도의 켈커타 거리를 거닐다가 수많은 굶주리는 사람들을 보았던 것이 기억됩니다...나는 켈커타의 큰 호텔의 5층에서 뒷 거리를 내려다 보았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남루한 옷을 걸치고 길가에 누어 있었습니다...아무런 갈 곳도, 먹을 것이나 은신처도 없었습니다... 그때 비가 내리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은 몸을 조금 뒤로 움직여 조금이나마 비를 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페루에서도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으며, 어느 날 우리는 한 신문 기자에게서 이러한 모든 가난한 사람

들을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하여 비난의 공세를 받았습니다. ‘왜 여러분은 전세계를 다니며 다른 일은 다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돌보지 않는 것입니까?’하고 그는 물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선생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그들은 보호를 받게 되고, 고통을 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가정에서 합당한 상태로 생활해 나갈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가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며 힘을 합쳐 풀어 나가려 한다면 복음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해결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점차 모든 백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선교 사업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가난한 자를 돕는 복음이며, 우리들보다 불행한 사람을 돌보는 복음입니다.”(복지 사업 모임 자료, 1974년 10월 5일, 18-19페이지)

1930년 대에, 당시 스테이크 부장이었던 해롤드 비리 전대관장은 대관장단으로부터 귀하께서 제기한 문제점에 관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보라는 지명을 받았습니다.

그 경험에 대하여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주님께 구했습니다...그러자 내게 무엇인가 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종류의 조직을 가져야 할 것인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이 세웠던 것과 같은 어떤 것을 세울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으며, 그때 나는 이 교회의 신권의 가치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간증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다른 어떤 조직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네게 이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조직을 주었노라. 신권 조직보다 더 위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노라. 이 세상에서 할 필요가 있는 일은 다만 신권을 행사하는 것이니라. 그것으로 족하다.”(복지 농업 모임 자료, 1970년 10월 3일, 20페이지)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교회와 그 회원들은 고난을 방지하고 경감시키기 위해 직접 수고하며 함께 참여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교회의 일은 이 일을 하는 데서 사회 및 개인 단체와 조화를 이루며 수행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교회의 기존 신권 조직을 통해 수행됩니다.

교회가 제대로 설립된 곳에서는, 광범한 범위의 복지 사업 자원이 신권에 의해 수행됩니다. 현실적으로 곤경을 받고 있는 수많은 빈곤한 사람들이 매년 감독의 창고와 데저렛 산업, 직업 알선 센터, 말

일성도 사회 사업 기관을 통해 보조받고 있습니다. 환경에 따른 자원 및 구제책 그리고 교회의 영역내에 있는 모든 사람의 필요 사항은 그러한 구제책이 주어지게 되는 원리대로 기꺼이 생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확장되는 지역의 감독 및 지부장들은 금식 기금과 그 지역 회원들이 뜻을 모아 노력하여 가난과 고통을 줄이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지난 12년 동안 2500명 이상 되는 자매들과 연로하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혹은 부부로서 복음 선교사로 일해 왔습니다. 현재 600명 이상이 전세계의 26개국에서 그러한 선교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의 모든 지역에 있는 회원과 선교사들은 귀하가 제시한 것과 같은 운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교사들은 학교 체제를 위한 보건 및 영양 교육 과정을 개발시켰으며, 의술을 향상시키는 일을 도왔으며, 질병과 영양 부족에 대하여 전국적인 규모의 방송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보건소, 연구회, 세미나, 강의 및 “건강 진단” 등으로 수 백만의 사람들에게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수많은 가정에 가정 소채원을 만들도록 하고, 가정 비축법과 현명한 영양 관리를 가르쳤으며, 신권회와 상호부조회 지도자 및 회원들에게 고난을 예방하고 그에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시켰

습니다. 교회는 또한 재난 발생시에 비상 구호대를 마련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예로는 캘리포니아와 아이다호주에서 홍수가 난 다음에 시행된 것과, 미국 남동부에 태풍이 몰아쳤을 때, 니카라과아, 페루, 과테말라 및 아르헨티나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파견된 구호대를 들 수 있습니다. 과테말라에서는 식품과 피난처, 의복, 침구 및 도구를 제공한 외에도, 교회에서 400채의 지진 방지 주택을 설계하고 새로 건축하여 그 지역 주민들을 도와 주었다는 사실을 아시면 귀하께서는 큰 관심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도 집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주택이 세워졌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은 전세계의 굶주림과 고난을 경감시키고 막기 위해서 교회와 그 회원들에 의해 은밀하게 수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뜻깊은 행위가 공포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사모아와 통가에서는 의료 도서관이 설립되었고, 칠레의 한 병원에서는 신생아실이 신설되었으며, 전세계 아동의 건강을 위한 연구 보조 재단이 발족되었으며, 저개발 국가에서 지원자들에 의한 의료 및 교육 사업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분명히, 교회 회원들은 킴벌 대관장이 말씀하신 믿음을 참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 회원들이 가난한 사람을 알면서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을 우

리가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하여 민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염려하는만큼 · 염려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지역 대표 세미나, 1978년 9월 29일)

교회와 당국과 교회의 많은 회원들은 현재 굶주림과 고난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우리 각자가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관심을 갖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다른 사람을 도울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가난한 사람은 “누군가”도와 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등을 돌려 자신의 안락한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고난을 덜어 주기 위한 일에 참여할 기회와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너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너희가 도울 것이요, 궁핍한 자와 더불어 너희가 가진 것을 나눌 것이요, 구걸하는 자를 버려 두어 죽게 하지 아니하리라.”(모사이야서 4:16)

교회는 모든 회원들이 “훌륭한 대업에 힘써 노력하여 자신의 자유 의사로써 많은 일을 행하며 많은 의를 이룩”(교성 58:27)하기를 권고하며 그러한 기회를 마

련하고 있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교성 82:3)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고통을 덜기 위하여, 국내에서나 국외에서 개인적으로 또는 한 가족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효율적인 가정 복음 교사와 방문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그와 같이 하는 것을 돕습니다. 우리는 자선 사업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론 신권과 청녀의 사업 계획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지 농장이나 청녀의 사업 계획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데저렛 산업에 기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개방시켜 양자 입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각 지역의 자선 단체에 시간을 내어 봉사하고, 가난한 사람을 섬기기 위한 지역 사회 사업을 계획하고, 훌륭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지금 주 위해 일할 기회 많네. 바로 지금 우리 앞에 뒷날 하리라고 미루지 말아라. 오늘 나가 선행하라.”(찬송가, 119장) *

이해심있는 결혼 반려자

테런스 디 올슨



우리는 뉴 멕시코 북부의 산지로 짧은 여행을 떠나기 위해 집을 꾸렸으며, 나는 마지막 아이와 물품을 차에 올려 놓았다. 아내가 문 밖에 나와서 기분 좋게 말했다. “다 되었지요!” 아내는 문을 막 잡아다녀 잠그고 있는 순간 내가 열쇠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황급히 소리쳤다. “문을 닫지 말아요.”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순간적으로 나는 화가 났다. 나는 아내에게 비난하는 투로 말했다. “열쇠가 집안에 있단 말이오!”

다행히, 깜박 잊고 열린 창으로 우리는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집안에 들어갈 수 있었으므로, 나는 감정을 풀어 버렸다. 나는 아내가 나의 감정을 건드려 고통을 준 것을 “용서했다.”

후에, 나는 그 경험을 생각하면서, 나는 내 자신의 실수를 정당화시키려는 한

방편으로 편의상 아내를 비난한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비뚤어진 느낌으로 인해 나는 아내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며 나는 어쩔 수 없이 희생자가 되었다는 인상을 갖도록 행동했던 것이다.

실상 내가 화를 낸 것은 전혀 아내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내가 내 행위의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은 데서 나온 것이었다. 아내가 내 용서를 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아내의 용서를 받아야 했다.

실제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품고 있던 감정을 내 편에서 회개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아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아내가 회개를 하고 나는 용서해 주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되기 위해서는 내가 회개하는 것만이 필요했다. 나는 아내가 잘못했든 안했든, 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혼 생활의 문제점에

매우 실제적인 해결책이 된다고 확신하고 있다.”

가 회개하는 것 곧, 내가 원망스런 느낌을 품었던 것을 스스로 벗어 버리는 것이 필요함을 알았다. 나는 회개하지 않는 마음(용서하지 않는 마음)과 동정심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서로 상반되는 태도이다.

이처럼 사소한 일이 용서와 사랑과 동정심에 관한 어떤 중요한 진리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그리스도와 같은 태도가 결혼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문제를 다루는 기초가 된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게 되면 가장 긴장된 관계에서조차 하나됨에 이를 수 있다.

결혼 문제 및 가정 문제 상담자인 나는 결혼 생활에서 해결하기 힘들 정도로 큰 문제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된다. 플래그 자매(가명)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나에게 애정 없는 결혼 생활을 해나가는 것에 대하여 속수 무책의 느낌을 느끼고 있음을 이야기했다. 내가 그녀에게 지금부터 일년 전의 그녀의 생활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그 당시의 결혼 생활은 어떠했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라고 하자, 그녀는 실망을 너머 절망하기까지 했다. 그녀는 그녀의 결혼 생활은 전혀 달라질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과연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지조차 의심했다. 그는 자기 세계에 도취된 채 무관심하게 초연해 있었다. 그는 품행이 난한 것은 아니었으나, 아내와의 사이에 거리를 두

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경우를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1) 그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생각하고 무력감을 느꼈다. (2) 그녀는 남편과 거리가 생기게 되어 감정적인 부담을 갖게 되었다. (3) 그녀는 자신이 환경의 희생자이며, 자신이 남편의 행위로 인해 함정에 빠지고 비참함을 확신했다. (4) 그녀는 복음이 자신의 환경에 합당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상적인 전형으로 생각했다. (그것은 마치 그녀가 자신의 고통을 복음 원리의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는 것 같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혼 생활의 문제점에 매우 실제적인 해결책이 된다고 확신하고 있다. 어떤 남편 또는 아내들은 경전에 나오는 권고의 말씀을 너무 “추상적” 또는 너무 “이상적”인 것으로 보고 있지만, 나는 항상 복음이 개인 및 결혼 생활의 행복의 근원이 되며 그것이 결혼 생활에서 문제 해결의 해결책을 제시해 왔음을 알고 있다.

따라서, 나는 플래그 자매에게 세 가지의 중요한 복음의 태도 즉, 용서, 사랑, 자비심이 그녀와 그녀의 남편이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자 했다. 나는 집문이 잠겨 내가 화나도록 한 “장본인”이 아니라 느꼈듯이 플래그 자매도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남편이라고 부당하게 비난하고 있음을 그녀가 깨닫도록 도와 주고자 했다. 아내에



게 잘못이 있는 없는 내 감정의 발로를 아내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었다. 내가 원망스럽게 생각한 느낌은 곧 내가 아내에게 자비심을 느끼기를 거절한 태도라고 볼 수 있었다. 플래그 자매도 그와 마찬가지로 경우였다. 그녀의 남편에게 잘못이 있는 없는, 그녀가 어쩔 수 없다는 느낌을 받게 된 것은 그녀가 그를 자비스럽게 대하지 못함을 나타내는 한 방편이 되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나는 그녀의 남편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며, 그녀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다만 그녀의 머리 속에” 들어 있다는 이야기다. 어쨌든 나는 그녀가 자기 환경을 바라보는 태도가 문제의 하나가 된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그녀는 속수 무책이라 주장함으로써, 점점 더 어쩔 수 없는 지경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가령 플래그 형제가 실제로 플래그 자매의 말대로 무관심하게 초연한 자세로 있으며 그녀가 말한 것이 모두 사실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녀는 복음 원리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자신의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그녀의 남편이 감동되어 변화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자기 스스로 속수 무책감과 실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과 남편을 위해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플래그 자매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문제에 관하여 어떤 것을

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면, 그들은 문제 해결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플래그 자매와 같이 속수 무책이라는 느낌을 받고 있는 사람과 함께 일한 적이 있었다. 그는 자기로서는 결혼 생활의 어려운 문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가 무력감을 느낀 것은 사실이었으나 그러한 느낌이 그의 처지로 인해서 생성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누군가에게 그러한 책임을 전가시킬 뜻으로 그러한 느낌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었다. 그러한 것은 그에게 스스로 좌절감을 느끼게 할 뿐 환경에 대하여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었다. 이러한 감정을 그대로 간직한 그는 아내의 “잘못”에 대하여 아내를 원망하게 되었다.

그가 이러한 감정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는가? 플래그 자매와 같이, 그는 그런 감정을 버리고 대신 그리스도와 같은 용서와 사랑과 자비의 태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속수 무책의 느낌과 용서해 주는 마음을 동시에 느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어찌할 수 없음을 계속 주장하다가, 아니면 자신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향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적대 감정을 느끼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보다는 스스로의 문제에 더 기본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대하는 행위



로 인해서 우리가 자비심이 없게 되거나 용서를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용서하기를 거절함으로써 우리 스스로에게 그와 같이 하는 것이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평온을 이루고자 하면 먼저 우리 자신이 그러한 원망의 감정을 지니고 있는 것을 회개해야만 한다.

교리와 성약 64편 10절을 생각해 보자. “나 주는 내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거니와 너희에게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을 요구하노라.”

배우자에 대하여 용서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작이 된다. 첫째되는 두 계명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된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처지를 다르케 보게 된다. 우리의 남편 또는 아내를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함으로써 더 큰 애정으로 상대를 보게 되고, 더 이상 실망하지 않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복음을 부정하는 길이 아니라, 복음의 정도를 걷게 된다.

우리는 ‘속수 무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정신적인 부담을 덜 수 있다. 이것이 신앙이다—선반 위에 얽매어 놓여 있거나 책 속에 숨어 있는 신앙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생활 속에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신앙이다. 복음의 한 가지 은사는 하나님은 슬픔과 낯설어 하시거나 우리의 문제에 냉담하시지 않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우리가 이와 같은 면으로 복음의 원리를 대한다

면, 속수 무책이라고 생각하는 감정의 부담을 벗어 버리고 신앙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가 여전히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해도, 그것은 우리가 전에 느낀 실망과는 질적인 면에서 전혀 다른 것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희생자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배우자의 행위가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런 느낌 이외의 것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로서 “...스스로 행동하며 강요되지 아니하...며 만물이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주어졌”(니파이이서 2 : 26-27)다고 가르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고, 또 어떤 죄를 저지른다 해도, 상대의 그러한 행위가 우리의 지성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게 해서는 안된다.

물론 뾰족한 묘책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를 애정으로 대하고 아내의 “잘못”을 사랑의 눈초리로 바라본다면, 남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는 아내의 견해, 아내의 고충을 알게 될 것인가? 그는 아내의 자기 정당화의 행위를 인정할 것인가? 그는 어떻게 하면 그들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두 사람이 함께 일할 수 있는지를 연구할 것인가? 그는 내일

“우리의 남편 또는 아내를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함으로써,
상대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복음의 길을 걷게 된다.”

의 희망을 볼 것인가?

복음은 이러한 모든 질문에 예 라는 대답을 준다.

이와 같은 새로운 태도를 지니게 되면, 우리는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을만큼 자유롭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함정에 빠져 있다는 관념을 벗어 버리고 설득과 관대함으로 대하며, 온유하며, 친절하고, 서로 “거짓없는 사랑”을 베풀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를 주께서 그들을 대하듯이 대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의 남편 또는 아내를, 그리고 우리의 결혼 생활을 새로운 견해 즉 복음을 생활함으로써 갖추게 된 새로운 견해로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비난하거나, 원망하거나, 실망하는 대신 사려깊은 태도로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는 다만 시작에 불과하다. 그것으로 결혼 생활의 문제가 바로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서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보게 됨으로써, 우리는 효율적인 문제 해결의 문을 열게 된다. 힘과 영향력은 실상 거짓 없는 사랑과 동정심과 돌보아 주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우리는 그러한 태도를 지닌 연후에야 비로서 스스로의 결혼 생활에 의로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의 배우자가 조금도 태도의 변화를 보이지 않아 우리가 바라는 대로 결혼 생활에서 하나님됨을 이루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도, 우리는 여전히 원망과 속수 무책의 굴레에서 벗어나 뜻깊고 보람있는 삶을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환경의 희생자가 아니다.

그러나, 흔히 이와 같은 경우에서도 배우자의 한편에서 애정을 품고 생활하기 시작한다면, 결혼 상대자의 많은 문제점은 사라지게 된다. 우리가 탐욕과 적대감을 키운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배우자에게서 보게 되는 문제점을 들어 우리의 원망을 정당화시키게 된다. 우리가 애정을 느끼지 못하는 마음을 회개할 때, 이러한 원망스런 감정은 사라지고, 새로운 안목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보게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가 그래 주었으면 하고 원하는 바로 그러한 사려깊은 결혼 배우자가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남편 또는 아내를 축복해 주는 역할을 해낼 수 있게 된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하고 요한이 말씀하셨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남편, 또는 아내 또는 자녀)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 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보나

“자녀들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16-18)

복음은 결혼 생활에 발생하는 문제의

“속죄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야말로
 결혼 생활이나 가족간의 문제를 포함한
 여하한 변화에 대한 선결 조건이 된다.



해결이다. 속죄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야말로, 결혼 생활이나 가족간의 문제를 포함한 여하한 변화에 대한 선결 조건이 된다.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으나, 용서와 사랑과 자비를 포함한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언

제든지 활용할 수 있다. 복음과 자유의 지로 인해,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뿌리는 영과 같은 영을 거두게 되므로, 적대감과 원망의 기초를 놓게 되거나, 아니면 사랑의 생활의 씨앗을 뿌려 집안에 평화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 *

이야기해 봅시다.

“이해심있는 결혼 반려자” 기사를 읽은 후, 개인적으로 다음 질문 몇 가지를 생각해 보거나 남편과 아내로서 그 문제를 토론해 보도록 한다.

1. 나의 결혼 생활에서는 어떻게 해서 복음이 특정한 관심사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2. 나는 나의 배우자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합리화시킨 일이 있는가? 우리 각자가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면 우리의 결혼 생활은 어떤 면에서 향상될 것인가?
3. 저자는 우리의 본질적인 감정은 책임 회피의 한 방편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한 감정은 어떻게 제거시킬 수 있는가?
4. “이해하는” 결혼 생활은 무엇과 같은 것인가? 우리가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심정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대할 것인가?

규칙을 변경시킨 타히티 축구 선수
에럴 베닛



“너 정신이 나간 모양이구나?” 에
 렐 베닛의 아버지는 말일성도 예
 수 그리스도 교회에 들어가겠다는 아들
 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가 폭발했다. “너
 미쳤니? 년 모든 걸 포기해야 해, 네가
 여태까지 노력해서 쌓아온 모든 것을 말
 이다. 년 네가 무슨 짓을 하는지 전혀 알
 지 못하는 거야!”

아들의 항의를 일축해 버리며, 그는
 이렇게 주장했다. “네가 정 그런다면,
 나는 너를 보고 싶지도 않다. 집안에 있
 는 네 물건을 모두 가지고 나가 다시는
 문 안으로 한 발자국도 디밀지 말아라.”

물론, 부모의 정도에 지나친 걱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장애가 된 것은 그
 것이 첫번째가 아니었다. 새로운 종교
 교리에 대한 반대보다는 이러한 태립에
 는 더 큰 무엇이 있었다. 에렐 베닛에게
 는 교회에 가입한다는 것이 타히티에서
 최우수 축구 선수로서 눈부시게 성공한
 그의 생애에 종지부를 찍는다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남 태평양 제도에서
 축구는 남 아메리카나 유럽 지역에서
 와 같은 인기를 누린다. 축구는 타히티
 에서 어떤 스포츠 종목보다도 가장 많은
 애호가를 얻고 있으며, 그 팬들은 게임을
 위해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승
 팀은 국가적인 영웅이 된다. 27세때; 에
 렐 베닛은 이미 타히티 어널스 디비전의
 우승팀 주장이 되는 명예를 획득했다.
 그의 이름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
 으며,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그가 오랫동안
 그 영광의 자리를 지켜 나가리라는 것
 은 분명했다. 175센티의 키에 가냘픈
 체구 만으로는 그가 운동장에서 중형 무
 진으로 활약한다는 사실을 전혀 짐작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늘 웃음짓는
 미소와 조용한 태도는 타히티 신문에

“베닛,” “베닛, 토오너먼트의 최고 득점
 자”라고 대문자로 내건 제목과는 전혀
 걸맞지 않게 보였다.

1977년에 아내와 함께 부모님의 집으
 로 차를 몰고 가던 날 저녁에, 에렐은 자
 신의 생활을 것처럼 극적으로 변화시킨
 계기가 되어 준 최근의 사건을 생각해 보
 면서, 그는 그 소식을 어떻게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하느냐에 대하여 곰곰이 생
 각했다.

타히티에서의 스포츠는 직업적인 것이
 아니므로, 에렐은 평일에는 타히티 수도
 파피에이테이에서 경찰관으로 일했다.
 시청의 재정과에 근무하는 한 친구가 처
 음으로 그에게 교회를 소개했다. 그 친
 구도 라이스스 테로오아테아였으며, 파
 피에이테이 타히티 스테이크의 제3 와드
 감독으로 있을 때, 축구 선수와 그의 아
 내를 가정의 밤에 초대했던 것이다.

베닛 부부는 그날 저녁 모임을 즐겁게
 보냈으며, 그들이 본 “행복의 추구”라는
 영화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번에는
 베닛 쪽에서 초청을 했고, 베닛은 자기
 의 관심이 깊어지는 것을 느꼈다. 베닛
 형제는 후에 이렇게 회상했다. “감독은
 복음 원리를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나
 의 아내와 나는 침례받을 필요성을 깊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은 에렐이 속한 축구 클
 럽, 어널스 디비전의 수위 팀인 센트럴
 클럽에 폭탄 선언이 되었으나,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건 종교적인 편협과는 아
 무런 관계가 없었다. 남 태평양의 다른
 여러 지역에서와 같이, 타히티의 모든
 축구 게임은 일요일에 열렸다. 클럽의
 임원들이 말일성도에 관하여 알고 있던
 한 가치가 있다면, 그들은 일요일에 스포
 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할 일을

갖고 있다는 것이었다. 클럽 임원들은 벌써 전부터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선수들이 교회 회원이 되고 난 뒤에는 일요일에 축구를 하지 않는 것을 보아 왔다. 에럴 베넷이 말일성도가 되고자 하는 결정은 그가 선수 생활을 그만두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일요일에 관한 그들의 견해는 옳았다. 에럴은 자기가 침례를 받는다면 더 이상 일요일 게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벌써부터 말해 왔다. 그가 것처럼 좋아 하는 축구보다는 교회가 우선이어야 마땅했던 것이다. 센트럴 클럽과 축구 연맹의 나폴레옹 스피트 회장—그는 타히티 스포츠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실력자였다.—이 현재 지역 대표요 당시 스테이크 부장이었던 파피에이테이 스테이크의 빅터 디 케이브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에럴이 일요일 공을 칠 수 있도록 특별한 율법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었다. 결국 그것은 단순한 축구 게임이 아니라, 국가적 위신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었다. 스테이크 부장의 대답은 예의 바르나 빈틈 없는 것이었다. “에럴에게 직접 말씀하시어, 그에게서 답변을 들으십시오. 침례받기로 결정한 것은 그 자신이므로, 자신의 생각을 회장님께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압력은 그가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는 아버지, 아들이 스포츠계에서 이룬 업적을 것처럼 자랑스럽게 여긴 그 자신의 아버지를 대하여 맞서야 한다는 어려움보다 큰 것은 아니었다.

지금에 와서 베넷 형제가 그때의 일을 회상하는 것을 들어 보면 그 경험이 그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그때까지는 부모와 늘 가깝게 지내왔

으나, 이제 그의 아버지는 돌처럼 굳어졌다. “네가 우리 사이에 벽을 쌓았다. 더 이상 너와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부친은 당시 그의 아내가 임신하고 있었던 세째 아이를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에럴과 그의 내내는 그날 저녁 지극히 참담한 기분으로, 그러나 복음만은 거부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눈물지며 부모의 집에서 나왔다. 그들이 깊이 확신한 것은 그들에 대하여 굳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에럴은 아직 회원이 되지는 않았으나,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은 그의 친구인 테르 호아테아 감독에게 조언을 구하고자 한 것이었다. 축구 선수는 감독이 그의 말을 듣고난 뒤에, 그에게 우선 화해의 단계를 취하여 이 마지막 시도를 다 할 때까지는 침례받는 문제는 제쳐놓도록 에럴에게 권고했다. 그런 다음 그는 신권 축복의 원리와 신권의 권능을 어떻게 사 용하여 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설명해 주었다.

그날 저녁, 에럴은 처음으로 신권 축복을 받았다. 오래된 말일성도 친구요 열성적인 축구 팬인 노엘 타라티가 축복해 주었다. 타라티 형제는 에럴에게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그의 부친이 냉정하게 말씀하시기는 했으나, 그가 돌아간다면 받아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튿날, 에럴은 다시 부친의 집으로 차를 몰고 갔다. 그는 집으로 다가 가면서, 부친이 정원의 대문 곁에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부친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에럴, 날 용서해다오.” 하고 그가 말했다. “지난 밤에는 그 일을 생각하느라고 한숨도 자지 못했다. 네가 여기 오지 않았다면, 내가 가려 했



몇 개의 트로피를
앞에 놓고 있는
에럴 베닛과 그의 가족

다.”

그런 다음 그는 말을 계속했다. “수많은 사람이 네게서 실망을 느낄 것이다. 네가 일요일에 경기를 하지 않는다면 선수 생활의 중지부를 찍는다는 뜻이 될 것이다. 나폴레옹 스피트씨씨는 다만 너를 받아들이기 위해 전체 축구 리그 계획을 바꾸려하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너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네가 결정 할 일이다. 나는 다만 네가 다시는 그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 문제는 끝내자.”

에럴과 그의 부친 사이의 관계는 그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가까워졌지만, 양쪽 가족에게 주는 압력은 계획된 침례일까지 계속되었다. “그날 내가 경험했던 느낌이 지금도 새롭습니다.”하고 지금에 와서 베닛 형제가 하는 말이다. “우리는 많은 압력을 받아 왔으나,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나는 최종적인 확인, 즉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는 확신과 나아가야 할 바에 대한 주님의 마지막 지시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내가 즐겨 달리기를 하던 집 근처에 있는 산으로 올라가, 은밀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내 감정을 표현 일이 기억납니다. 나는 내가 과연 올바른 발걸음을 내디디고 있는가에 대한 확인의 메시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산에서 반쯤 내려오다가, 또다시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집에 다 와 보니, 밖에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브리엘 바이아누이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교회 회원으로 약 10여년 동안 비활동으로 지내며, 가끔 간헐적으로 교회에 참석했습니다. 가브리엘은 시장에 있다가 에럴 베닛이 몰

몬 교회에 결코 가입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었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직접 확인하고자 곧바로 우리 집으로 차를 몰고 왔던 것입니다.”

에럴은 바이아누이 형제를 자신이 찾았던 사자로 여기고 다짜고짜 그에게 물었다. “가브리엘 형제님, 내가 오늘 침례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곧 그는 대답했다. “에럴, 어떤 일을 하든, 자네는 침례를 받아야 하네. 교회에 등을 돌리지 말게”

베닛 형제는 가브리엘 바이아누이 형제의 충고에 감사한다고 말하였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작은 힘이 부족한 나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침례식은 계획대로 거행되었으며, 그 후에 에럴 베닛은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되었다. 축구 클럽에서는 축하도 비난도 하지 않았으며, 그날 조용한 저녁이 다 지날 때까지 그는 자신의 결정을 내렸다. 아무리 궁리를 해 보아도 묘한 타협안이 떠오르지 않았으며, 그가 일요일에 공을 차지 않는다면 연습을 한다 해도 별 소용이 없겠다는 생각이었다. 이튿날 그는 나폴레옹 스피트 회장을 만나 축구 선수 생활을 그만두겠다고, 다른 유망 선수에게 자리를 물려 주겠다고 의사를 밝힐 결정을 했다.

스핏트씨의 반응은 놀라운 것이었다. “며칠만 기다려 주게”하고 그는 말했다. “이 주말에 리그 회합이 열리게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려 주게”

에럴은 며칠 뒤에 새 소식을 듣고, 거의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나폴레옹 스피트씨가 리그 임원들에게 일요일에는 센트럴 클럽은 경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

하도록 권고했던 것이다. 스핏트씨는 일요일에 경기를 하면 팀 선수들이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게 되므로,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관습이라고 말했다. 다른 리그 팀들이 아무리 하기를 원한다 해도, 센트럴은 일요일에는 경기를 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그 안이 투표에 붙여져, 그 결정은 만장 일치로 통과되었다. 이제는 어널스 디비전의 모든 게임은 평일 저녁에 거행될 것이다.

타히티 주간 신문인 라 데페쉬 지의 마이클 페런드 스포츠 기자는 다른 클럽의 대표자 자격으로 그 모임에 참석했으므로, 그 모임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 일을 이렇게 회상한다.

“물론, 그러한 변화가 요구된 참된 이유를 누구나 다 알았습니다. 나폴레옹 스핏트씨는 센트럴의 대표자로 그 모임에서 연설했습니다. 그는 왜 우리가 그러한 변경을 시행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이유 즉, 선수들과 그 가족들이 받는 압박 등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했지만, 그 동기가 된 것은 에럴 베닛이 물론 교회에 참여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 회의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페런드씨는 선수들 자신은 그러한 새로운 조치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 같으나, 대중들의 반응은 오락가락 하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세워진 전통을 바꾼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하고 그는 말한다. “여러 해 전부터 일요일에 축구 게임을 보아 왔던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평일 밤시간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몇몇 스포츠 기자들은 그것을 그리 달가와 하지 않았으나, 비평

은 상당히 누구러졌읍니다. 여러분은 에럴 베닛이 타히티에서 상당히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국가적인 영웅을 공공연히 비난할 스포츠 기자는 없읍니다!”

1977년에 에럴 베닛이 칩레받은 이래, 타히티 어널스 디비전에 속한 십이 개의 수위 클럽들은 주 중에 게임을 했다. 이제는 그것이 관습처럼 정착되어 에럴이 게임에서 은퇴를 하든지 구단을 떠나더라도 쉽사리 환원되지 않게 되었다. 타히티에서 가장 큰 카톨릭 사립 대학인 라 메네스 대학의 집행 서기이기도 한 페런드씨는 그 변화를 이렇게 환영한다.

“개인적으로 나는 그것을 좋게 생각합니다.”하고 그는 말한다. “그것이 일요일을 더욱 성스럽게 보내는 데 도움이 된다면, 더욱 좋은 일이지요.”

축구 애호가들이 지금은 일요일에 게임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모여 든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러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것 외에도, 5년 전에 에럴 베닛으로 인해 유발된 변화는 타히티 축구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반향을 목격해 온 나폴레옹 스핏트씨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한다.

“선수들도 평일 저녁에 경기하기를 즐기는 것이 분명합니다.”하고 그는 말한다. “그들은 일요일에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좀더 휴식을 잘 하고, 연습도 잘 하고 경기를 잘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들도 처음에는 의혹의 눈으로 보았지도 모르나, 이제는 그들도 일요일에 자유롭게 가족과 함께 하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느끼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일요일에 경기를 하지 않는다는 베넛 형제의 규칙은 지난 5년 전에 세워진 것이었으나, 에털 형제는 타히티에서 열렸던 단지 두 게임에만 빠졌었다. 그것은 둘 다 1977년에 있었던 것이다. 그 첫번째는 그가 침례받은 다음 날로, 축구 리그에서 요일을 바꾸기 위한 역사적인 모임을 갖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 두번째 게임은 타히티 컵 최종 선발전으로, 타히티에서 112개 클럽 전체가 공개 시합을 갖는 대전이었다. 나폴레옹 스피트씨는 너무 복잡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첫해부터 최종전을 다음 날로 옮겨야 했다. 그 다음 해도 해마다 에털 베넛으로 인해 타히티 컵 대회에서는 일요일 경기를 피해 왔다.

원리에 관한 에털 베넛의 입장이 거기서 끝났다면 참으로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신념은 그후 몇 해 동안에 걸쳐 거듭거듭 시험받아야 했다. 나폴레옹 스피트씨가 전 지역에서 유명하게 되었다.

타히티 섬에는 프랑스 의회에서 의원을 선출해 보내는 프랑스 자치 지역인 불령 폴리네시아의 보상된 150,000명 인구의 대다수가 속해 있다. 타히티는 독립 국가가 아니라, 프랑스 영토이므로, 월드컵이나 올림픽 게임에 축구 팀을 출전시킬 수 없다. 그러나 4년에 한번씩 열리는 남태평양 게임에는 출전할 권리를 갖고 있었다.

1979년에 피지섬의 수바에서 남 태평양 게임이 열렸을 때, 일요일을 신성하게 지키는 것에 관한 베넛의 강력한 주의를 훌륭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

게임을 갖기 몇 달 전에 피지인들과의 예비 회담에서, 나폴레옹 스피트씨는 일

요일에 관한 문제가 다시 거론되리라는 것을 예상했다. 그의 예상은 적중되었다. 피지인들은 축구 결승전을 일요일에 하도록 계획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나폴레옹 스피트씨가 이끄는 타히티 체육회 대표단이 수바에 도착할 때까지 그대로 미해결된 채로 있었다.

사실상,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통가와 사모아에서도 종교적인 것을 근거로, 수년 전에 반대 의견을 제기했으나, 변화를 가져올 정도로 강력하게 밀고 나가지 못했다. 그러나 1979년에는 사정이 달랐다.

나폴레옹 스피트씨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남 태평양 게임 규정에서 미비된 점과 소홀히 해왔던 점을 미리 살펴본 그는 규칙 조문에서는 실제로 일요일 게임을 금지 했음을 지적하고 그것을 적용하여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축구 게임은 일요일을 피했습니다.” 그가 지금에 와서 하는 말이다. “에털이 일요일에 경기를 하지 않을 것이므로, 그가 경기 하지 않는 것을 나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타히티 농구 팀에는 물론 농구 선수들이 다섯 명이나 되었으므로, 그들의 농구 시합도 역시 일요일에서 옮기기로 합의한 것을 기억합니다.” 하며 그는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띄우며 덧붙여 말했다. “물론들은 남 태평양 스포츠계를 일대 혁신시켰습니다!”

여러 달에 걸쳐 회담을 가진 후, 결국 1979년 게임 날짜가 다가왔다. 말일성도 주장이 일요일로부터 월요일로 바꾼 후, 에 뉴 헤브라이즈(현재 바누아투 독립국)와 대전한 지역 결승전에서 우승했다. 그 뒤를 이어 타히티는 뉴 칼레도니아와 대전한 준결승전에서 승리했으며,

그 시리즈의 절정을 이루는 결승전에서 피지를 제압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사람들이 계속하여 에렐 베닛과 그의 비상한 능력을 찬탄하고 있으므로, 그를 무척 고답적으로 심지어는 독선적이라고 까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처신에서는 전혀 그러한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그는 질문에 대한 답도 수줍다 할 정도로 조용하게 한다. 그의 흉안 웃음 속에는 그가 원리를 철저히 따르는 깊은 사색가라는 사실이 숨어 있다. 이러한 특성이 필경 나폴레옹 스핏트씨와 같은 완강한 지역 지도자에게 호감을 주게 되었으며 그의 팀 선수들 간에 존경심을 사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하는 에렐의 열성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가 주님의 날에 축구 공을 차기 보다는 차라리 중요한 게임에서 빠지는 편이 낫겠다고 그가 말한 것은 그의 확고한 의사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 사실은 그가 종교적인 신념으로 인해 국제적인 팀과 겨루는 중요한 시합에서 빠진 경우가 여러 번이었다는 점에서 분명히 나타났다. 그러한 경우도 한결같이, 게임이 타히티가 아닌 외부 지역에서 있었던 것으로, 주최 국에서 경기 일정을 계획할 권리를 갖고 있고, 그들이 방문한 타히티 팀의 상황에 따르는 것이 조금도 유리할 것이 없는 경우였다.

그러한 경험을 가장 잘 말해 주는 것은 1978년에 있었던 일로 불란서 본국과 자치령 전역에서 모인 축구 팀들이 탐내는 프랑스 컵 쟁탈전이였다. 타히티 축구 리그전도 프랑스 축구 연맹에 속해 있었으므로, 타히티 팀도 프랑스 컵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오래 전부터 지켜져 내려오는 관례로, 타히티에서 선발된 두 팀과 불령 뉴 칼레도니아에서 선발된 두 개 팀이 대전을 벌여, 남 태평양 축구 팀 중에서 어느 팀이 프랑스로 여행하여 연례적인 프랑스 컵 대항전에서 프랑스 대표팀과 대전하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기로 되어 있다.

대항전을 갖는 장소는 매년 타히티와 뉴 칼레도니아 간에 교대로 갖게 된다.

1978년에 에렐이 소속한 센트럴 팀이 뉴 칼레도니아 팀과 선발전을 벌이게 되었는데, 타히티 외부 지역에서 경기를 하게 되었으며, 최종전은 일요일에 하게 되었다. 나폴레옹 스핏트씨의 유창한 실력으로도 뉴 칼레도니아인들에게 게임을 다른 날로 옮기게 할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에렐은 2년 전에도 프랑스 컵 최종전에 그의 팀이 진출하게 하는 데 큰 공을 세웠으면서도, 그는 게임에서 빠졌다. 그의 팀 동료들은 그날 오후에 있게 될 중대 시합을 위해 일요일 아침에도 준비 운동에 여념이 없었으나, 에렐은 교회에 나갔다. 호각이 게임 시작을 알렸을 때, 센트럴 팀의 주장은 혼자서 호텔 방으로 돌아와 있었다.

“나는 그날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그는 회상한다. “게임이 막바지로 향할 때, 나는 사태가 수월치 않게 되리라 고 강하게 느꼈습니다. 나는 축구 게임을 위해 주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알 수 없었으나, 나는 내 입장을 그리고 내가 옳은 것을 행하려 노력했다는 사실을 주께서 아시고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나는 무릎을 꿇고 주님께 우리 팀 선수들이 그들의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에렐은 그날 안식일 오후에 센트럴 팀이 겨우 60초를 남겨 놓고 한 골을 넣어



승리를 거두고
기뻐하는
에럴 베닛

타히티 팀이 2-2로 동점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계속된 연장전에서 센트럴 팀은 우승점을 따냈다. 센트럴 팀의 경기 중 가장 기념될 만한 것이었다.

1980년에 센트럴 팀은 다시 타히티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뉴 칼레도니아 팀과 프랑스 컵 대항전을 벌이게 되었다. 에럴은 뒤로 물러서 참가하지 않으려 했다. “그것은 국제전입니다.”하고 그는 말했다. “우리가 결승전까지 진출하여 일요일에 게임이 하게 될 경우” 그때에 가서 내가 게임에서 빠진다면, 사기가 떨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른 선수를 미리 나대신 대치시켜 놓는 것이 모든 관계자들에게 정당할 것이라고 내가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스윗트씨는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는 “뉴 칼레도니아 팀에게 토요일에 경기하자고 말했습니다.” 에럴은 4-3으로 우승점을 따냈다.

타히티 스포츠는 직업 스포츠가 아니므로, 국제 축구제에서 대수롭지 못한 불명 폴리네시아인들을 해산시키기는 것은 쉬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인구의 약 25퍼센트가 회비를 내는 스포츠 클럽의 정규 회원들이다. 타히티는 축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기술, 개인기, 및 지구력에서 남 태평양의 14개국 및 자치령 중에서 거의 최고 수준을 늘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타히티 축구의 승리를 도맡아온 장본인인 에럴 베닛은 자신의 영향력이 그가 살고 있는 섬나라 밖에 까지 미쳤음을 이미 보아 왔다.

베닛 형제는 즐거운 마음으로 1979년의 남 태평양 게임 중에 가졌던 신문 기자와의 대담을 회상해 본다. 타히티 주장이 일요일에 경기하기를 거부한 것에

흥미를 느낀 신문 기자는 인터뷰를 요청했다. 대담 중에 그는 이렇게 물었다. “오늘날 살아 있는 사람 중에서 당신은 누구를 가장 존경하십니까?”

“그는 의자 등반이로 깊숙이 물러 앉으며 내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베닛 형제의 회상이다. “그는 내가 어떤 뛰어난 체육인의 이름을 말할 것으로 기대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이신 83세의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어느 날인가 그의 손을 잡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의 마지막은 대개 교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에럴 베닛은 결국 킴볼 대관장과 악수를 나누었다. 1981년 2월 13일에, 대관장이 타히티 신전 기공식을 위해 타히티를 방문하였다. 교회 지도자의 경호를 보조하는 책임이 에럴 베닛에게 맡겨졌다.

현재 32세로 다섯 자녀의 아버지인 베닛 형제는 지금도 타히티 축구제에서 정상을 차지하고 있다. 파피에이테이 교외에 있는 그의 집 거실 선반에는 번쩍이는 트로피가 열을 지어 서 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타히티에서 최우수 선수 자리를 지켜 왔다.

베닛 형제의 용기가 교회의 이미지를 섬 나라에 세워 놓은 결과를 본다는 것은 참으로 흥미있는 일이다. 시 제이라는 선교부장은 구도자들이 모이는 교회 모임에서 베닛 형제를 소개하지 않는 때가 없다. 타히티 지역의 공보 책임자에서 최근에 해임된 진 태판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물론, 안식일을 성스럽게 지키는 것

에 관한 교회의 입장을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존중한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원리를 끝까지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타히티인들, 축구 선수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지지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도 말일성도의 특성으로 인해 일요일에 게임을 관전하기 보다는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왜 나폴레옹 스핏츠씨와 같은 저물급 인사가 같은 종교적 신념을 나누는 것도 아니면서 안식일 문제에 관해 것처럼 오랜 기간 동안 일개 축구 선수인 에럴을 기꺼이 지지해 주었는가? 막강한 지역 스포츠 위원회 회장이며, 불령 폴리네시아 축구 연맹 회장인 동시에 최근에 불령 폴리네시아 입법부의 초대 부회장으로 선출된 그는 에럴 베닛의 어떤 면을 이처럼 존중하게 되었는가?

“에럴에 관한 한, 그것은 깊은 종교적인 신념에서 나온 문제라는 것을 나는 알았으며, 나는 그 점을 존중했습니다.” 하고 스핏츠씨는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의회 건물내에 있는 그의 사무실 의자에 등을 기대며,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 말한다.

“에럴 베닛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닙니다. 나는 그를 전대미문의 가장 위대한 축구 선수로 생각합니다. 선수로서의 그의 태도와 그의 정신이 그를 위대한 인간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는 물몬이 되기 전에도 그러한 성품을 지녔겠지만, 지금은 그 정도가 더욱 증대되었습니다.”

“에럴 베닛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닙니다.

나는 그를 전대 미문의
가장 위대한
축구 선수로 생각합니다.
선수로서의 그의 태도와
그의 정신이
그를 위대한 인간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는 물몬이 되기 전에도
그러한 성품을 지녔겠지만,
지금은 그 정도가
더욱 증대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생활에서 단 한 번도 나쁜 행위로 주의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에럴 베닛이 얼마나 더 축구 선수로 떨 것인가는 아무도 모른다. 그는 지금부터 적어도 5년 간은 수위 자리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멀지 않아 명예롭게 은퇴할 것이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지난 해 6월 20일에 파피에아테이 스테이크 모임에서 에럴의 전 감독인 라이시 스테로오아테아 형제가 새로 조직된 피라에 타히티 스테이크를 관장하라는 부름을 받았으며, 에럴은 스테이크 고등 평의원으로 부름을 받았다. 기대했던 대로, 그는 평의회 모임을 연습 모임보다 중요하게 여긴다. 그를 위해 나폴레옹 스핏츠씨는 남 태평양 게임이 이 해에 사모아의 아피아를 위해 계획될 때까지 에럴이 계속 뛸 수 있기를 희망한다.

에럴 베닛은 열광적인 지난 5년 간의 그 자신의 생활에 대하여, 그가 당면했던 압력에 대하여, 그가 지켜온 원리에 대하여, 그가 영향을 미친 생활에 대하여 다만 이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참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

황금의 시간

아데 지 캅



대부분의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는 “그리고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말로 끝을 낸다. 캐나다 켈거리에 살고 있는 네드라 레드 자매는 이러한 이야기는 모두 꾸민 이야기임을 년지시 상기시켜 준다. “우리의 생애에 많은 행복한 시간이 있지요.”라고 말문을 연 그녀는 만일 우리가 아무런 고통 없이 지내기를 기대한다면 크게 실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의 인생 항로에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밀어닥칠 것을 예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생을 살아 나가자면 때로는 생활이 우리를 물기도 하고 할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요지를 설명하기 위해 자신이 캐나다에서 양육했고 자녀 만큼이나 사랑했던 새끼 고양이에 대해 말했다. “나는 두 고양이에게 각각 니코테무

스와 루퍼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하고 소리내어 웃었다. “고양이는 물기도 하고 할퀴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들은 또한 부드럽고 사랑스럽기도 해요. 만일 우리가 언젠가는 좋은 때를 맞게 되리라는 기대 가운데 생을 바라보고 계획을 세우나 때로는 물리며 할퀴를 당하는 참으로 아픈 경험을 하면서 그러한 불행한 시기는 곧 지나가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생은 달콤한 것이며 우리는 실망에 빠지거나 더 비참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생에서 흑심한 시험을 겪었던 레드 자매는 잠시 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면서 무엇이든 받아들이고 인정하겠다는 그런 어조로 이렇게 고백했다. “어떤 일이 참으로 어렵게 될 때 그것은 기대하는 바대로 되어지지 않구나 하고 생각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은 기대했던 바대로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시련과 시험을 받는 때가 있는가 하면 적절한 시기에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위안의 때 곧 특별한 때를 주시는데 나는 그 시기를 ‘황금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녀의 철학을 피력하면서 그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은 7일로 정하시고 그날 가운데 하루를 매우 특별한 날로 정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어려운 날들도 있고 더 행복해질 수 없을만큼 행복한 날들도 있는 것입니다.”

레드 자매의 “황금”의 때의 하나는 그녀의 첫 아기 곧 그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였다. 그러나 그것도 3개월이 채 못되어 생의 시련과 시험이 곧 밀어 닥치기 시작했다. 어머니와 아기가 모두 소아마비에 걸렸던 것이다. 걱정은 커져 갔고 따라서 기도도 열렬했다. 그녀의 남편이

며 현재 캐나다의 신학 연구원 책임자인 필립 레드 형제는 그 당시 정식 신학원 세미나리 교사로서 인생의 첫발을 내디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우리는 참으로 옳은 일을 행하기 위해 시련을 받고 있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고통의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리라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들 각자에게 그의 백성은 자기 외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시련과 시험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교성 101 : 4 참조)이 충실한 부부가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은 이러한 연유 때문이었다. 그들의 기도는 일부이기는 했지만 응답되었다. 레드 자매는 그 무서운 병에서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고 완치되었으나 그녀의 귀중한 외아들은 다리와 팔과 등에 마비가 일어나게 되었다. 행복한 때의 불꽃은 곧 사라져 버렸으며 생의 할퀴와 물림만이 고통스러운 현실이 되고 말았다. 레드 형제와 자매는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 160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아동 병원에 특별한 치료를 위하여 그들의 아기를 맡기지 않으면 안되었다. 일년이 지난 후에도 그는 여전히 나약했고 진전이 더디었다.

3년이라는 긴 불안의 해를 넘겼으나 그녀의 자녀에 대한 걱정은 커져만 갔다. 모성애의 성스러운 역할에서 나온 본래의 순수한 감정과 참되고 의로운 어머니의 신성한 본성 때문에 그녀의 마음은 더욱 아팠다. “나는 그 아이가 좋아지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했습니다. 나의 어린 아들을 밤에 침대에 누일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의 생명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했습니

우리가
위안을 기대할 수 있는
바로 그 시간은
주님께서 우리의
인내와 충실성을
헤아리신
그 순간이다.

다.”라고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녀의 근심이 절정에 달했던 어느 날 밤 이 젊은 어머니는 일어나 다른 방으로 건너가 거기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한 사건을 기억했다. 한 위대하고 고귀한 여인이 그녀의 고통받고 있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녀가 남편의 질병을 대신 짊어져서 남편이 주님에 대한 봉사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도록 허락해 주시라고 간구했던 것이다. 거의 즉시 이 자매는 완전히 커머거리가 되었으며 일생을 커머거리로 살았다. 반면에 그의 남편은 기적적으로 회복되어 영적인 거인 곧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 그녀는 마음속에 이러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 충실한 어머니는

그녀의 아들을 위해 아버지께 간구하면서 만일 그녀가 아들의 질병을 대신 짊어질 수 있는지 여쭙어 보았다. 이러한 사건에 관해 그녀는 이렇게 끝맺음을 했다. “나는 잠자리로 돌아가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그녀의 어린 아기는 여전히 병원에 있었지만, 거기에는 또 다른 행복한 “황금”의 시간이 찾아왔다. 또 한 아들이 태어났고 그 다음에는 딸이 태어났다. 얼마 후 병을 앓던 아기는 더욱 더 건강해지기 시작했고 버팀대에 의지해서 걷는 것을 배웠다. 드디어 그는 잠시 동안 병원을 떠나 집에서 성탄절을 가족과 함께 지내도록 허락을 받을 수 있었다.

마음으로 기뻐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반면, 할림과 물림의 시간도 엄연했다. 몇 달 뒤 레드 자매는 자신의 손과 발에 감각이 없어져 감을 알게 되었다. 아기의 기저귀를 갈아 주는 동안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종종 안전핀으로 엄지 손가락을 찔렀다. 그녀는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서야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무서운 마비가 그녀의 온 몸에 기어 올라오고 있음을 알았다. 그녀는 새로 태어난 아기를 돌보고 그녀의 가족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기가 매우 힘들어졌다. 달이 가고 해가 계속되는 동안 그의 길에는 투쟁과 축복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녀의 어린 아들은 버팀대를 떼어 버리고 학교로 갔다. 이러한 축복들은 깊이 표현된 겸손한 감사로써만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이었다. 심한 두통에 시달리며 손과 발에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이 젊은 어머니는 도움을 구하기 위해 외쳤다. 가족과 친구의 도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너무나, 너무나 훌륭했어요. 그러나 신체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었으므로 이 사랑

하는 자들을 돌볼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라고 그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때를 회상했다.

그때 전문가 팀은 그녀의 몸을 괴롭히고 그녀에게 괴로운 신체적 장애를 주었던 그 병은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녀가 장차의 일에 대해 생각할 때 커다란 걱정이 앞섰다. “그것은 수년 전의 일이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레드 자매는 이제는 아름답고 건강하고 활동적인 여성으로 변해 있었고 용모와 간증에 생기가 있었으며 투쟁을 통해 정화된 영을 발산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녀와 헌신적인 남편과 함께 모든 일에서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당시 신학원 중등부의 관리자이며 지금 총관리 역원이 되신 한 친구로부터 권고를 구하였던 그날에 관해 말했다. “그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내가 생명을 바치라는 뜻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나에게 축복을 해주고 주께서 나의 어린 아기를 위한 간구를 받아들여주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내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험의 크기와 위안의 때를 정하시는 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시험을 겪은 후에야 증거를 얻게 됩니다. (이더서 12 : 6 참조)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위안을 기대할 수 있는 바로 그 시간은 주님께서 우리의 인내와 충실성을 헤아리는 그 순간이다. 축복을 받은 후 레드 자매의 상태는 더 악화되어 10월 25일에 그녀는 병상에 눕게 되었으며 그녀는 겨우 남의 도움을 받아서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그녀는 이렇게 설명했다. “나는 이빨조차 닦을 수 없었으며 나의

남편과 나는 삶과 죽음의 목적에 대해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일이 잘 되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로부터 힘을 얻은 이 젊은 부부는 시험을 당하였으며 “주께서 인간에게 합당하다 여겨어 내리시는 모든 것에 어린 아이가 그 부모에게 하듯 기꺼이 순종”(모사이야서 3 : 19)하려고 하였음을 알았다.

12월 20일에 네드라 레드는 앨버타의 에드몬톤에 있는 한 병원으로 실려 왔다. 거기서 그녀는 정밀 검사를 받았다. 길고도 불안스러운 이틀이 지나서 의사 팀은 그녀의 전신을 괴롭히는 병은 다발성 경화증이 아니며 오히려 두개골 밑바닥에 생긴 심한 뇌종양일 가능성이 크다고 확인했다. 이 경우 수술이 불가능할 것 같았다. 그녀의 약화된 신체적인 상태에서 수술은 커다란 위험을 안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의사는 만일 종양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녀는 단지 두 주 일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종양은 그녀에게 호흡 곤란을 일으켰으며 곧 공기의 유입을 정지시킬 것이었다. 사태는 절망적인 것 같았다. 한 의사는 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수술을 받기를 원한다면 성탄절 이후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레드 자매는 그녀의 친구이며 총관리 역원에게서 받은 축복으로 가득 채워진 힘의 저장소에 생각이 미치게 되었다. 그때 이 젊은 부부는 용감하게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크리스마스 전야에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시작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속삭였다. “어느 일요일 밤 스테이크 부장이었던 내 사촌이 나에게 와서 축복을 주었습니다. 후에 그가 말하기를 그가 나에게 축복을 하였을 때 그 자신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신권의 힘은 다시 그녀에게 작용되었다. 걱정되는 가족과 친구들은 밤을 세워가며 수술의 결과를 기다렸다. 날이 밝았다. 그날은 성탄절 아침이었다. 종양은 제거되었다. 주위는 그 병실에 걸린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들렸을 뿐 고요했다. 그녀의 장래는 점칠 수 없었다. 레드 자매는 이렇게 설명했다. “내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나는 매우 특별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탄절 아침은 이 충실한 여인에게 생명의 은사가 되찾아온 생과 사를 분간할 수 없는 몽롱한 상태였다. 그들은 소중히 여기고 맛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하나씩 하나씩 충분한 공간을 두고 되돌아왔다. 그와 같은 은사와 그와 같은 보석과 그와 같은 값진 보화가!

그녀가 최초로 의식한 것은 “무사하구나! 수술대에서 죽지 않았구나! 내가 살았구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깜깜했고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었으며 말을 해보려고 했으나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소경이 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들을 수도 말을 할 수도 없었으나 나는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나는 자신이 살아 있다는 감사가 물결처럼 밀려오고 있었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무의식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후에 내가 다시 의식을 회복했을 때 일종의 어둠 침침한 빛이 내 주위에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때 나는 비로소 전혀 볼 수 없는

때때로 우리는
 시련과 시험을 받는 때가
 있는가 하면
 적절한 시기에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위안의 때
 곧 특별한 때를 주시는데
 나는 그 시기를
 ‘황금’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것은 아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떤 빛을 볼 수 있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저는 살아 있으며 전혀 볼 수 없는 소경은 아닙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암흑 가운데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후 나는 필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남편이 나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하였으나 나는 남편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남편을 볼 수 있었으므로 남편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라고 그녀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얼마 후 나는 남편이 나에게 말하는 것을 알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기도드리고 내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나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족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레드 자매는 성탄절 아침에 주어진 이와 같은 귀중한 은사에 대해 그녀가 드린 깊은 감사에 대해 생각하면서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보화에 대한 최상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의사가 거기에 있었으며 나는 말을 해보려고 애썼습니다.

나는 그 의사가 남편에게 ‘그녀가 말을 했습니까?’라고 묻는 것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그 의사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염려하던 것이었습니다.’ ‘중양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녀의 성대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 안되었거든요.’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걱정을 했습니다.”

레드 자매는 완전하고도 낭만한 음성으로 그 당시의 생각을 더듬는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나는 말을 할 수 없었으나 듣고 볼 수는 있었습니다. 나는 무한한 기쁨과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때 의사는 기관 절제를 했던 목구멍에 손가락을 넣고는 ‘자 말해 보세요’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나는 병어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정말 상쾌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축복해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날은 성탄절 아침이었습니다. 필은 그날 밤을 나와 함께 보냈습니다. 나의 온 영혼은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집으로 가서 자녀들과 함께 지내자고 했습니다. 이날은 정말 훌륭한 성탄절이었습니다.”

시련과 고통을 당할 때마다 신안과 용기의 깊은 근원으로 그것들을 타개해 나갈 수 있었다고 레드 형제와 자매는 기뻐했다. “주님께서 행하실 수 없는 일은 없으며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된다면 여러분을 위해 행하시지 못하거나 행하지 않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와 같은 위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아냈다. “주님은 단지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할렐루야 합창’과 조용한 배경 음악과의 비교와 같은 것입니다. 그분은 위의 두 가지 음악에도 함께 하시며 그것은 모든 생에 있어서 결국은 행복해진다 것을 계속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

주 예수 그리스

진 알 쿡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오래 전에 누군가가 말하기를 큰 사건이 일어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의 사람이 늘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위대한 무엇이 일어나고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 둘째, 무엇인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기는 하나 확실히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 셋째, 막후에서 이것을 가능케 하는 자.

어떻게 사람이 큰 일을 성사시키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젊은 형제나 자매로서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효율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학업에서나 생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일을 훌륭하게 성취시킬 수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방법으로 행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어떤 일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학업에 대해 걱정하나 원하는 바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운데는 직장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운데는 결혼 문제로 걱정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결혼해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누구와 언제 결혼할 것인가? 여러분 가운데는 가족 양육 문

제 즉 질병, 사망, 성격이 잘 안맞는 문제, 개인 성장 등으로 걱정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그것들이 가장 잘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으나 그릇된 선택을 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얼마 동안이나 쓸데없는 저항을 하여 상처를 입겠으며 얼마 동안이나 네 자신의 생각대로만 행하겠느냐?”

충실한 말일성도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도록(교성 90 : 24 참조) 스스로 행동하되 강요되지 않기 위해(니파이이사서 2 : 13-14, 16, 26-27 참조) 그리고 의롭게 자신과 남과 상황을 이기기 위해(니파이삼서 7 : 17-18 참조)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알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자기 자신에 관한 주님의 구체적인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할 것이며 그런 후 신앙 가운데서 자신을 주님의 뜻에 순복시키려는 훈련을 쌓기를 원할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앙의 원리가 없었다면 세상은 결코 형성되지 못했을 것이며 인간도 흠으로

도를 믿는 신앙

부터 창조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앙이란 여호와가 일하시는 원리이며, 이것을 통해 주님은 세상적인 것이나 영적인 일을 다스리는 권세를 행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원리 즉 속성(이것은 하나의 속성임)을 빼앗아 버린다면 그분은 존재하시기를 중단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은 모든 것을 통치하는 권세와 통치권과 권능을 갖고 있는 첫째가는 큰 원리이며 이것에 의해서 저들이 존재하며 들리워지며 변화되며 또한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여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권세가 없으며 권세가 없으면 창조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신앙 강좌, 제1강, 9-10페이지)

내가 알고 있는 바 신앙에 관한 가장 간략한 정의는 “신앙은 권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앙을 어떻게 행사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과 남을 축복하기 위해 그 권세를 사용하는 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아래에 그 구체적인 방법 여섯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1. 믿음시다

나는 니파이가 하신 다음의 단순하면서도 성스러운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나 니파이는 나이는 어렸

으나... 주님께 간구하였노라, 보라 주께서 내게 임하사,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으며, 부친께서 하신 말씀을 모두 믿었던지라 형들처럼 부친께 항거하지 아니하였느니라.”(니파이일서 2:16)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부모나 지도자의 말씀에 대하여 만져 볼 수 있는 증거를 전혀 갖지 않고도 신앙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믿지 않으므로 신앙을 망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이 없는 레이먼과 레뮤엘에게서 이러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에 레이먼이 나와 부친께 화를 내었으며, 레뮤엘도 레이먼의 말을 듣고는 화를 내었으니...(니파이일서 3:28)

몇몇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고 속아서 레뮤엘과 같은 이상한 음성을 따랐으며 그들은 합당치 못한 주장이나, 인간을 믿었고 옳지 못한 원리를 믿게 되었습니다. 후에 니파이는 그의 형들에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훌륭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쳤습니다.

“천사가 너희에게 작고 조용한 소리로 말하였으나 너희 마음이 무더어 듣지 못하는지라.”(니파이일서 17:45)

여러분이 신앙을 행사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증거를 요구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영감적인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오직 여러분 자신의 경험만을 믿습니까? 신앙이란 외적 증거에 근거를 둘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자신의 신앙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표적이 따를 것입니다. 계속 믿어 나갈 때 여러분은 영적인 증거를 얻게 됩니다.

2. 굳게 결심합시다

굳게 결심하고 엄격하게 자신을 다스려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 결심이 요구하는 것을 실제로 성취하기 보다는 참된 결심을 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은 그들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그 자체가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고 생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떠드는 대로 세상의 아무 주장이나 설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삶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막연한 생각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것을 얻기 위한 굳은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자신의 신앙을 의로운 가운데 행사합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자신의 의로운 희망이 달성될 때까지 영적인 우선 순위를 정해 둡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면에서 니파이의 성스러운 결심과 개인적인 수양은 나를 크게 감동시켰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살아 계시고 우리가 살아 있는 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을 이루기까지는 광야에 계신 부친께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니”(니파이일서 3:15)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란 완전

한 지지를 뜻합니다. 인간은 자신을 훈련시키고 그 대가를 치름으로써 어떤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과 인간에게 성스러운 것이 되게 하십시오. 참으로 결심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계시하신 바를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선교부장이었을 때 내가 알고 있었던 한 젊은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신앙이 충만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우루과이 청년이었는데 내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 선교부에 3~4개월 동안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가 어디서 봉사하던 많은 사람들을 칭찬했음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너무 어리고 경험이 없는 선교사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것은 그의 선임 동반자의 덕택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일을 가능케 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선임 동반자와 지역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를 선교 사업에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전도하기 힘든 곳으로 악명이 나 있는 한 도시로 보냈습니다. 선교사들이 거기서 근 1년간 전도했으나 단 한 사람도 침례하지 못했습니다. 회원들은 실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지부에는 10명에서 12명 정도의 회원만이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단지 천근하게 되었음을 알렸습니다. 3주 후에 그와 그의 동반자는 침례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기서 약 10주간 봉사했습니다. 그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 모두에서 침례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침례를 줄 수 있는 선교사를 가졌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행하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다면, 그의 지도력은 많은 사람의 생활에 축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선교사는 결코 주례 보고서에 많은 글을 쓰지 않았읍니다. 그는 단지 이렇게만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선교부장님, 저는 선교부장님을 사랑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또는 “선교부장님, 주님께서 우리들을 크게 축복해 주시고 계십니다. 나는 이 사업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형제로부터,”

그는 후에 지구 지도자(Zone leader)로 부름을 받고 매우 전도하기 힘든 도시를 포함한 선교부의 위쪽 지역 전부를 관리하도록 보내졌읍니다. 그에게 부여된 새로운 과제는 선교사들에게 그가 행하고 있는 바를 행하도록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2~3개월 봉사하는 동안 많은 침례자를 배출했읍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 그곳의 선교사뿐만 아니라 회원 지도자의 정신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합심해서 영적인 기적을 일으켰읍니다.

그후 내게 영적인 갈등이 있었읍니다. 그것은 그에 대한 어떤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그를 파라과이로 보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읍니다. 그 당시 파라과이에서의 선교 사업은 매우 저조했읍니다. 우리는 전국에서 평균 한 달에 겨우 20명 내지 25명의 침례자를 배출해 내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 문제와 씨름했고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했읍니다. 그는 참으로 이곳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했으나 그를 그러한 상태에 두는 것은 많은 다른 사람들처럼 그를 실망의 구렁텅이로 끌어들이는 것일 것입니다. 그는 거

기서 자신의 신앙을 지탱하기에 어려움을 크게 겪으리라고 생각했읍니다. 나는 정말로 그를 보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나의 신앙과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 마침내 나는 영의 지시에 따르기로 했읍니다.

나는 그에게 파라과이 아순시온으로 가서 지구 지도자(Zone Leader)로 봉사하라는 전보를 보내고 바로 다음날 떠나라고 명했읍니다. 그는 몬테비데오까지 왔으나, 그는 나를 만나려조차 오지 않았읍니다. 그는 늘 단정했으며 언제나 “선교부장”을 만나는 것을 다소 난처하게 여겼읍니다. 그는 선교 본부를 떠났읍니다. 그는 편지 한 통을 놓고 갔는데 그것은 내가 그에게서 받은 최초의 편지였읍니다. 그 편지에는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읍니다. “사랑하는 쿡 선교부장님, 저는 오늘 파라과이로 가라는 전보를 받았읍니다. 그런데 부장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에 관해 알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파라과이에서는 침례를 줄 수가 없읍니다. 나는 적어도 10~15명의 장로로부터 거기에서의 그들의 경험에 대해 들었읍니다. (2) 회원들은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그곳의 비회원 간에는 심각한 도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4)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5), (6), (7), (8)...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내가 생애에서 들어 본 바 가장 부정적인 것들에 대한 10가지 내지 12가지를 열거했읍니다.

나는 곰곰이 생각했읍니다. 오, 믿음이 없는 자들이 그를 물들게 했구나. 그러나 그가 이렇게 열거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읍니다. “선교부장님, 저는 단지 부

“이 씨앗이 나의 영혼을 키우며...”

이 씨앗이
참된 씨앗
곧 좋은 씨앗임에
틀림없느니라.”
(앨마서 32 : 28, 34)



장님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의 어느 것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의 증거였습니다! 그런 후 그는 자신의 신앙을 표시한 후 결단을 갖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선교부장님, 저는 부장님께서 성탄절날(편지의 일부인은 12월 1일이었음)에 우리가 25명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읽었을 때, 나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주님께서 그대를 축복해 주시리라. 그대는 놀라운 신앙을 갖고 있으며 주님은 그대를 지지해 주실 것입니다. 그대는 그 나라를 알지 못하며 거기에 가 본 적도 없습니다. 그대는 어디에 살 것이며 동반자도 지도자들도 회원들도 알지 못하며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대는 신앙으로 25일 내로 25명을 침례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신앙으로 충만해 있었으며 위대한 라틴 지도자의 참된 모범이었습니다. 12월 25일 그와 그의 동반자는 18명을 침례했습니다. 그들은 25명에는 도달하지 못하였으나 18명은 보통 때 한 달에 전국의 침례 수와 맞먹는 수였습니다. 2주 후에 그와 그의 동반자가 11명 이상을 침례하는 침례식에 참석하게 된 것은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날 그의 지역(district)에서 약 30명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은 한 의로운 자가 어떻게 전반적인 상황을 변화시켜 놓을 수 있는지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까?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하였으며 그와 주님께서 그것을 해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충만해 있다면 여러분도 자신의 생활과 다른

사람의 생활에서 문자 그대로 일들이 여러분께 유익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마가복음 9:23) 여러분의 의로운 소망에 앞서 굳게 결심하십시오. 신앙을 의롭게 행사하면 그것이 실현될 것입니다

3. 우리가 할 바를 다 합시다

여러분의 능력 안에서 자신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하십시오. 사람들은 머뭇거리면서 주님께서 자신이 해야 할 일 이상의 일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능력의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를 대신해서 주가 그의 팔을 나타내 보이시지 않는다는 사실은 경전에 명백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희생하고 자신의 능력껏 모든 것을 행한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때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야고보서 2:22)

우리는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행할 뿐 아니라 이것이 요구되어지는 방법을 알고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자주 요구하시는 희생은 우리 자신의 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희생으로 드리고 그가 모든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심정을 얻기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의 능력 안에서 최선의 노력으

로 해야 할 바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4.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이 오직 주님께 달려 있다는 생각으로 기도하십시오. 만일 그의 종들이 그로부터 무엇을 요구한다면 주님께서는 그의 종들의 희생을 귀히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때로는 인간들이 이러한 때를 당하지만 실은 주님께 나아가 신앙의 은사나 신권의 권세를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교성 4:7).

모든 것은 인간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가운데 보인 신앙에 따라 저들에게 허락되리라.”(교성 10:47)

만일 어떤 사람이 기도 가운데 큰 신앙을 행사하고 필요할 때 금식한다면, 사랑이 많으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아버지께서는 그가 의롭게 요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의로운 것이라고 믿거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주께서 정하신 시기에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5. 신앙의 시련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에 부단하고도 심한 시련이 따를 것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환란은 신앙을 연관시켜 줍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환란이 있고 난 연후에 축복이 임할 것임이니”(교성 58:4)

주님께서는 결코 인간을 유혹하지 않으시나 그분은 인간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환란과 문제는 이 지상의 학교에 언제나 상존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오직 상류로 높은 고지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때로는 급류에서 나와 잠시 동안 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올라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고지에 도달해 있으나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은 열렬히 기도하지 않으며 또한 시련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이 싸워 나가고 있는 도전과 어려움은 우리를 정화시키며 우리를 거룩한 자가 되게 해주는 요소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이 소유한 모든 속성과 생의 모든 발전 단계에서 여러분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를 섬길 것임을 아실 때까지 반복해서 시험하실 것입니다.

모로니아가 하신 다음 말씀은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내가 세상에 밝히 전하고자 하거니와, 신앙이란 비록 보이지 아니하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보이지 않는다 하여 이를 부정하지 말지니, 너희의 신앙이 시련을 겪은 후에야 증거를 얻겠음이라.”(이더서 12 : 6)

6.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주님께서 그분의 거룩하신 뜻과 여러분의 신앙에 따라 행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그분의 팔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의 성도들을 돌보실 것이며 다른 사람들이 여러

분의 모범으로 신앙을 배우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으로 인하여 일이 성취되는 것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전능하신 팔과 여러분 가운데 있는 권세를 끌어당겨 자신의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또한 여러분이 너무 깊이 세상적이며, 물질적이며, 피상적이며, 부수적인 일에 몰두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일들은 잘 처리되어야 하며 더욱이나 영적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난 후 여러분이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신앙을 잃어서는 안됩니다. 주님 자신의 방법과 시기에 모든 의로운 기도는 응답될 것이나 그분의 방법과 때는 우리의 것과 같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어떤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지나가는 듯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방법으로 응답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련을 만날 때, 우리는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 신앙을 배가 시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얼마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로 내가 믿노니 어떠한 경우에서도 스스로 겸손하고자 하는 자가 너희 중에 있느니라.”(앨마서 32 : 25)

감사한 마음을 가진자도 위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감사한 마음을 가진 자가 너희 중에 있느니라.

모든 소유를 다 잃고난 후에 욥이 하신 감동적인 대답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찌니이다.”(욥기

1:21) 순종하고 겸손하게 되고 인내하
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이 될 것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여섯 가지 제언을 설명
해 주는 매우 개인적인 신앙의 경험을 여
러분께 들려 드리겠습니다.

1977년 7월 29일, 아내와 나는 볼리비
아 산타크루즈 선교부 방문을 마치고 볼
리비아 코카밤바 공항으로 가는 중 기체
내에서 무려 5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는 전날 밤 겨우 몇 시간밖에 자지 못하
였으므로 심히 피로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기체내에서 몇 시간 쉴 수 있어
서 기뻐합니다. 내가 잠에 빠져 들어가
고 있었을 때 일어나서 몇 가지 착상을
적어 두어야 하겠다는 강한 느낌을 느꼈
습니다. 잠을 자고 싶은 욕망이 강했으
나 성령의 지시는 더 강렬했습니다. 사
실상 나는 거의 세 시간 동안이나 이것을
적었습니다. 그것은 전에 수년간 내가
고심해 왔던 조직상의 문제에 관한 것이
었습니다. 나는 그날 성령이 크게 임함
을 느끼고 기뻐서 영감받은 생각을 적어
두었습니다. 그러한 일로 연착되는 시간
을 잘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볼리비아의 라파스로 여행했습
니다. 우리는 공항에서 체이스 올레드
선교부장과 그 자매님의 영접을 받고 그
분의 차에 실려 선교부 사무실로 갔습니
다.

우리는 우리의 짐과 서류 가방을 차안
에 두고 차문을 잠그고 나왔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자 선교부장은 남편이
죽어 가고 있는 한 여인의 어려운 사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올레드 선교부장과 내
가 그녀의 필요를 돕고 있는 동안 쿡 자
매와 올레드 자매는 선교 본부로 갔습니
다.

선교부장과 내가 차로 돌아왔을 때,
나는 즉시 우리의 물건들이 모두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쿡 자매
가 그것을 선교부로 옮겨 놓았을 것이라
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선교부로 향해
차를 몰고 가고 있었을 때, 나는 오른쪽
앞 삼각 창문이 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의 물건을 도둑맞지 않았나 하고 걱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부에 도착했
을 때 우리 짐을 정말로 도둑맞았음을 알
았습니다. 상당한 액수의 돈과 우리의
의복들을 잃어버린 것은 당연한 문제였
으나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보다 더욱 마음 아픈 것은 나의
경전과 코카밤바에서 받았던 영감받은
생각을 적어둔 것이 서류 가방 속에 있었
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실망과 분노와 속
수 무책이라는 생각이 나를 엄습해 왔습
니다. 내 아내와 나는 기도했습니다. 그
리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저녁 식사를 즐기려
했으나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커다란 상실감을 누
가 알 수 있겠는가? 그 경전은 내가 어
렸을 때 부모님에게서 선물로 받은 것이
며 한 경전에는 나의 어머니의 친서가,
그리고 다른 경전에는 돌아가신 나의 부
친께서 나에게 주신 성스러운 친서가 쓰
여 있었습니다. 나는 실제로 수천 시간
을 들여 그 책 속에 표시해 두기로 하고
전후 참조를 기입해 두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순간마다 그 책에 사랑을 쏟았
던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가장 값진 것
으로 여겨왔던 이 지상의 유일한 소유물
입니다. 나는 여러 번 아내에게 만일 집
에 불이 날 경우에는 먼저 아이들을 구해
내고 그리고 시간이 있으면 내 경전을 끄
집어 내고 그후에는 다른 물건에 대해서

“너희가 말씀을 잘 간직하면

이는 너희가
나무를 가꿈과 같아서
나무의 열매를 바라는
너희의 신앙과
부지런함으로
자라기 시작하여
뿌리를 퍼리니,
영생으로 뻗어 오르는
나무가 되리라. (골로새서 33 : 41)



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타일렸습니
다.

선교부장과 나는 그날 밤에 함께 있는 동안 그것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경전을 찾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그 도둑이 팔 수 있는 물건만 가져 가고 그 영어 책은 버리고 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선교부 인근 지역과 근처 들판을 수색해 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기도 가운데서 우리는 경전을 다시 찾게 되기를 간구했으며 또한 그것을 가져 갔던 자들이 자신의 불의한 행동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과 그 책을 되돌려줌으로써 어떤 사람이 참된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게 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런 후 우리들 가운데 여남은 명은 플래시를 들고 따뜻한 옷을 입고 차를 타고 시내에 있는 선교부 사무실로 갔습니다. 우리는 길 건너편의 공터와 근처길과 골목길을 샅샅이 뒤지면서 경비원과 그의 사람들에게도 물어 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보았거나 들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낙심하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올레드 선교부장과 나는 우리의 일을 마치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다음날 쿡 자매와 나는 항공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에쿠아도르, 키토로 돌아왔습니다.

그후 몇 주 동안 선교사들은 그 지대를

다시 살살이 뒤져 보았습니다. 그들은 울타리와 쓰레기통을 조사해 보고 근처의 공원에도 가 보았으며 책을 도난당한 곳의 벽에 그것을 돌려 달라는 광고를 붙여 두기도 했으며 그 책이 근처의 예상하지 않았던 곳에서 나타나지나 않나 하고 지켜 보았습니다. 그들의 최선을 다했으나 완전히 자포 자기에 빠져 있었던 선교사들은 이를 동안 신문에 광고를 내고 그 책에 관해 간단히 설명하고 현상금까지 내 걸었습니다.

에쿠아도르 키토에서, 나는 자신에게는 매우 힘든 영적인 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3주 동안 나는 전혀 경전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 번 시도를 해보았으나 겨우 한 절을 읽을 때마다 내가 20년 이상 적어둔 수많은 전후 참조 중 겨우 몇 개 만을 생각해 낼 수 있었습니다. 나는 실망하고 의기 소침해서 더 읽을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버지께 나의 경전을 그가 가르치신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 이외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면서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나 하겠다고 탄원했습니다. 나의 아내와 어린 자녀들도 이와 같은 축복이 주어지기를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2~3주가 지나서까지 그들은 매일 다음과 같이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빠의 경전을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약 3주가 지난 후 나는 다음과 같은 영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쿵 장로야, 너는 얼마나 오랫동안 경전을 읽지도 공부하지도 않고 지낼 작정이냐?” 이것은 나에게 시험이나 시련인 것같이 느껴졌

으며 내가 간절히 원하는 축복의 “대가”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말씀은 내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경전 읽기를 시작할 만큼 겸손하고 순종적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아내의 허락을 얻어 아내의 경전을 사용해서 구약전서 창세기부터 읽어 내려가면서 표시하고 다시 한번 전후 참조를 시작했습니다.

8월 18일에 한 친구인 에비 데이비스 형제가 볼리비아에서 에쿠아도르로 와서 내가 코카밤바에서 적어 두었던 서류가 들어 있는 서류철과 내가 도난당했던 선교부 예산에 해당되는 금액과 함께 나의 경전을 내 책상 위에 놓아 두고, 그것으로도 찾은 유일한 물건이며 그것은 그 라파스에서 비행기에 오를 때 선교부장이 전해준 것이며 그 책을 어떻게 찾게 되었는지는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교부 방문을 위해 며칠 후 그곳에 도착하면 그것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과 그 이후에 내가 경험했던 기쁨은 형언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라파스와 같은 도시에서 도둑들의 손에서 그 책을 들어 올리시어 한 페이지도 없어지지 않고 찢어지거나 더럽혀지지 않은 본래 그대로 되돌아왔다는 것은 아직도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가족과 수많은 볼리비아 선교사들의 신앙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한 것입니까! 그날 나는 아버지께 경전을 더욱 유용하게 사용해서 내 일생 동안 복음을 가르치기 위한 그분의 도구로서 사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8월 21일 일요일, 나는 에쿠아도르, 구아야길로 가서 거기서 8월 22일에 불

리비아 라파스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내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이 라파스에 있는 수백 개의 시장 가운데 한 시장에 있었는데 그 여인은 한 슬취한 사람이 검은 책 한 권을 흔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거룩한 무엇이 깃뻛히고 있다는 강한 영적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에게 접근하여 그것이 무엇인냐고 물었습니다. 그 남자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으나 그 책을 그녀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그 외에 무엇을 갖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또 다른 책 한 권을 꺼집어 내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것이 또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서류가 가득 들어 있는 서류철을 꺼집어 내면서 그것을 태워 버릴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후 그녀는 그 물건들을 그에게서 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미국 통화 2불 50센트에 해당되는 50페이지에 그것을 샀습니다. 그것을 사고 난 후, 그녀는 자신이 행한 일에 크게 놀랐습니다. 그녀는 그 책과 서류가 영어로 쓰여져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영어를 말하거나 읽거나 이해할 수가 없었으므로 영어로 된 책을 갖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읽을 수도 없는 언어로 된 어떤 책을 사기 위해 우리의 월급의 거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책 앞에 적혀 있는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다른 교회를 찾아다니던 후 그녀는 결국 주님의 인도로 라파스에 있는 선교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바로 그날 신문에 게재된 광고도 상금에 대해서도 결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것을 사기 위해 지불한 50페소조차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장로들은 그 책을 받고는 기뻐하면서 그녀에게 상금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오순절파에 속하고 있다고 선교사들에게 말했으나 그들이 복음을 그녀에게 가르쳤을 때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녀는 2~3년 전에 길가에서 받았던 한 소책자에서 요셉 스미스에 관해 읽은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녀와 첫번째 토론을 마치고 선교사들은 “그녀는 가장 귀중한 구도자”라고 보고했습니다. 두번째 토론을 마치고 그녀는 침례받기로 결심했습니다. 2주 후인 1977년 9월 11일 일요일 오후에 볼리비아 라파스에 있는 한 지부에서 마리아 크로에페 카레나스 테라자스 자매와 그녀의 12살 된 아들, 마코 퍼난도 미란다 카레나스가 함께 더글라스 리더 장로에 의해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로 개종했습니다.

누가 감히 내가 경전을 잃어버렸을 때의 심히 낙심되고, 풀이 죽고, 의기 소침하고 무력한 심정을 설명할 수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기적적인 방법으로 보여진 하늘의 권세를 보았을 때의 그 큰 기쁨을 누가 형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만일 그의 아들과 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앙을 행사한다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마가복음 11 : 23-24)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기적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믿습니다. 말일성도는 그들의 신앙에 따라 기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한 회원으로서 여러분 자신의 책임 안에서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왕국

“너희의 부지런함과 신앙과

인내로

말씀을 가꾸어

너희 안에

뿌리를 펴게 하라.

그리하면

보라

너희는 차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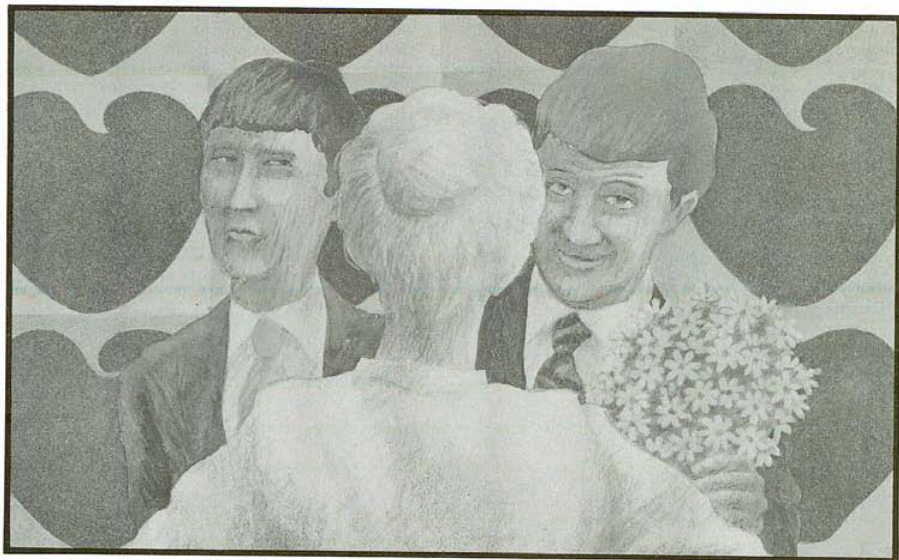
열매를 거두어...

(엘마서 32 : 42)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정을 받았습니다. 열렬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위대한 은사로써 여러분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에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그와 같은 책임이 여러분에게 견고하게 자리 잡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우리를 복돋아주는 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학업과 직업과 결혼과 가족 문제에 있어서 길을 열어 주실까요? 그분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자비와 용서와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충만해 있으시며 신앙이 충만한 자에게 축복의 보고를 열어 주기를 갈망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





이 기사는 실화이며, 이름만 바꿨음

날마다

사과

하나씩

리차드 엠 롬니

선교부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은 듀퐁 여사에 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인 듀퐁 지부장은 프랑스에 있는 가장 작은 지부의 지부장이었다. 그는 그의 마을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 수년 동안 열심히 봉사했다. 그러나 그 당시 그의 아내는 남편이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을 반대했다. 그녀는 남편이 “어리석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남편의 간증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으며 또한 선교사들이 그녀의 집은 물론 마당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내가 풋내기 선임 동반자로서 마을에 도착하던 날에 내 동반자인 그랑빌 장로는 지부장님의 아내가 가벼운 병에 걸렸다가 지금 회복되는 단계에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주었다.

“옳지, 그녀의 회복을 비는 꽃을 가지고 갑시다. 아마 그녀와 우정을 나누는데 도움이 될 것 입니다.”라고 나는 말했

다. “당신은 듀퐁 자매를 잘 모르시는군요.” 동반자는 말했다. (우리는 하여간 그녀의 동생도 회원은 아니었지만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마도 그녀는 단지 화만 낼 것입니다.”

나는 누구도 병에서 회복될 때 꽃을 거절하리라고는 믿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랑빌 장로가 문을 조용히 두드리고 있는 동안 나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좀더 크게 두드려야 그녀가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면서 나무로 만든 문을 크게 두드렸다. 작고 회색 머리의 여인이 창문으로 우리를 내다보고 있었다. 나는 다시 두드렸다. 현관 문이 열렸다.

“가세요!” 그 여인은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께 줄 것이 있어요.” 나는 대답했다.

“내 남편에게 줄 것이라면 그것을 문 앞에 놔주세요.” 그녀는 말했다.

“갑시다.” 그랑빌 장로는 조그만 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바로 당신에게 줄 것이 있습니다.” 내가 고함을 지르고 있다고 느끼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다시 말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문 앞에 있는 우리에게 걸어왔다.

“오, 맏소사!” 그랑빌 장로는 나의 코트를 잡아당기면서 조그맣게 말했다. 그 작고 조그만 여인은 거의 우리 바로 앞까지 걸어왔다.

“그래 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녀는 물었다

“꽃입니다.” 나는 대답했다. “이 꽃으로 당신이…”

“나는 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녀는 말을 가로막았다. “나는 결코 꽃을 좋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지만…”

“나는 꽃도 좋아하지 않고 선교사들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 제발 가 줘요.”

“하지만 당신이 좋아하는 것이 있겠지요.” 나는 거의 절망을 느끼면서 말했다.

“있지요.” 그녀가 말하길, “나는 과일을 좋아해요,

신선한 과일을. 나는 이 근처에서 과일을 충분히 구한 적이 없어요. 하여간 꽃을 가져 오신 것은 고맙지만 나는 정말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녀는 돌아서서 집안으로 들어갔다.

“안녕히 계세요.” 나는 그녀의 등 뒤에 다 대고 소리쳤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정확한 불어는 아니었지만 나는 그녀가 즐거운 하루가 되길 정말 원했다.

“장로님, 당신은 운이 좋았습니다.” 그랑빌 장로는 걸어 나오면서 한시름을 놓으며 말했다. “이전 어느 날 스토클리 장로와 내가 그녀에게 인사를 했을 때 그녀는 우리 면전에서 문을 팡 닫아 버렸습니다.”

나는 그에게 꽃다발을 건네 주었다.

“전도하러 갑시다.” 라고 나는 말했다. 다음 날은 준비일이라서 우리는 집 근처에 있는 시장으로 물건을 사러 갔다. 그때 나는 사과가 담긴 바구니를 보았다.

“그랑빌 장로님,” 나는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나는 그 바구니를 집어 들고 돈을 지불하려 계산대 앞으로 갔다. 그랑빌 장로는 식사 때마다 많은 사과를 먹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들떠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사과를 다 먹을 수 없어요!” 그는 말했다.

“사과는 우리가 먹을 것이 아니라 뉘똥 자매님께 드릴 것입니다.”

그랑빌 장로는 할 말을 잃었다. 잠시 시간이 지난 후, “롭니 장로님, 당신은 내가 만났던 사람 중에 가장 무모한 선임 동반자인 것 같습니다.

“나는 선교사 혼련 센터이래로 다만 당신의 두번째 동반자일 뿐입니다.

“하여간 당신은 지금까지 내가 만났던 사람 중에 가장 무모한 동반자입니다.”

그때 점원은 두 명의 미국인이 과일 바구니를 놓고 영어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계산대 위에 올려 놓았다.

“이것을 사겠습니다.” 나는 말했다.

“한 바구니 다 사시겠습니까?” 점원은 다시 물었다. (물론 불어로)

“좋습니다. 손님!” 점원은 친절하게 대하려고 애쓰면서 이렇게 말했다.

“손님은 사과를 매우 좋아하시는 모양이죠”

“그것은 우리가 먹을 것이 아니라 친구에게 줄 것입니다.”라고 나는 말했다.

“친구에게요?” 점원은 애써 놀란 표정을 짓지 않으려고 하면서 “아주 좋습니다. 손님”하고 말했다.

“한 바구니를 모두?” 그랑빌 장로는 불평을 했다. “우리는 식료품비로 요구르트를 사야 하는데!” 그는 식료품 몇 가지를 집어 들고 문을 나섰다.

우리는 물론 사과 몇 개를 먹었고 약간의 사과로 후식도 만들었다. 그러나 대부분이 뉘똥 자매에게 보내졌다. 우리는 결코 사과를 인편으로 보내지 않았다. 우리는 매일 사과 한 개를 간단한 글과 함께 그녀의 편지함 속에 넣었다. 어떤

때는 단지 “안녕하십니까?” 라고 적고 또 어떤 때는 “곧 회복되시길 빕니다.!” 라고 적어 보냈다. 하루는 “날마다 사과 하나씩 먹으면 의사가 필요없다.”라는 말을 불어로 번역했다. 번역하는 가운데 의미가 조금 이상해졌지만 우리가 바라는 바는 진지했었다. 월말이 되자 사과가 시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이를 사과 모양으로 오려서 종이 위에다 글을 적고 그것을 사과 대신에 편지함 속에 넣었다.

이러는 동안에도 그랑빌 장로는 계속 내가 무모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뉘똥 자매로부터 아무런 말도 듣지 못하고 있었다. 교회에서도 뉘똥 지부장님은 평소와 같이 친절했지만 결코 사과에 관해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루는 점심 식사를 위해 접시를 닦고 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문을 열기 위해 부엌에서 나와 현관 입구로 걸어갔다. 내가 문을 열었을 때 나도 또한 그랑빌 장로도 믿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져 있었다. 거기엔 뉘똥 자매가 우리가 최근에 보낸 사과와 함께 부친 글을 손에 쥐고 서 있었다.

“이 사과를 보내는 의미가 무엇이죠?” 그녀는 물었다. “당신 중의 누가 나를 이브라고 생각하지요?”

“우리는 단지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에게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라고 나는 답변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는 말하면서 실제로 미소를 지으려고 했다. “그러나 부탁입니다만 이미 당분간 먹을 사과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녀는 등에 걸친 쇼울을 머리 있는 데로 좀더 바짝 잡아당겼다. 나는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하려 했지만 그녀는 가려고 몸을 들렸다. “아,

참.” 계단을 막 내려가려고 할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남편이 내가 당신들을 일요일 저녁 식사에 초대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더군요.”

“저녁 식사요?” 그랑빌 장로는 내 뒤 어딘가에서 매우 놀라워 했다. “듀퐁 자매와 함께 말이에요?” 나는 그가 기절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문을 닫자마자 우리는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듀퐁 자매는 아주 요리를 잘했다. 프랑스 요리만큼 맛있는 음식은 없는 것 같고, 그것은 물론 집에서 만들 때 더욱 맛이 있는 것 같았다. 그 첫번째 일요일 저녁에 우리는 아주 잘 먹었으며 감사를 표시켰다. 또한 우리는 듀퐁 형제의 눈에서 환줄기 희망의 빛이 떠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다. 참으로 오랫동안 선교사들이 그의 집을 찾은 것이다. 이것은 약 17년 전 그가 침례받은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었다. 우리는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일요일에도 계속해서 저녁 식사를 초대받았다. 비록 간헐적으로 잠깐씩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듀퐁 형제의 지난 날에 대해 알 수가 있었다. 듀퐁 형제의 말에 의하면, 선교사를 만나기 전에 그는 마치 가뭄으로 황폐한 곳에서 목말라 헤매는 사람과 같았다고 했다. 그때 그는 갑자기 물이 있는 호수를 발견하게 되었다. 복음은 그에게 풍요로운 것이었으며 신선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마음껏 마실 수가 없었다. 그는 새로 발견한 보물에 몸을 담고 즐기면서 왜 다른 사람들이 이와 같은 메시지를 맛보고 싶어하지 않는가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대화의 부족은 그의 결혼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의 아내는 남편이 변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우리가 식사를 마쳤을 때 그녀는 우리에게 남편이 병상에 누워

있던 전쟁 시절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식량이 부족했던 때였지만 남편과 자신을 위해 어떻게든 해서 좋은 음식을 준비했다. 그녀는 매일같이 남편을 간호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그는 그가 힘을 얻어 걸을 때까지 수년 동안 계속 그녀의 보호가 필요했었다. 그 당시 그는 그녀가 가정을 돌보는 여러 해 동안을 걷는 연습과 건강을 회복하는 데 보냈다. 그가 막 다시 일하기 시작했을 때 두 명의 미국인을 만나 종교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런 후 그는 그들의 교회에 가입했다. 그 마을에서 유일한 회원이 되었으며 그는 강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의 생활은 점점 교회에 몰두하게 되었으며 그녀를 등한시 하게 되었다. 그녀는 배앓였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마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광신자의 아내라고 비웃었을 때 어찌할 바를 몰랐다.

듀퐁 지부장은 계속해서 이 교회가 참되며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을 아내와 나눌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아내는 이야기를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그들이 서로 격렬한 논쟁을 한 후 나는 이렇게 말했다.

“내 말을 좀 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말하려고 하는 것은 서로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듀퐁 자매님, 지난 수년 동안 당신은 남편에게 좀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자고 요구해 왔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며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듀퐁 지부장님, 당신이 원하는 것은 당신에게 가장 귀중한 것을 아내와 나누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듀퐁 자매에게

얼굴을 돌렸다.

“당신은 남편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과 복음을 나누고 싶어한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생각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했다. 우리는 조용히 가겠다는 인사를 하고 집으로 갔다. 그날 저녁 그랑빌 장로의 기도는 솔직했고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나님 아버지, 부디 듀퐁 가정이 서로를 이해하도록 도와 주십시오. 그들은 모두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기도가 아주 훌륭했기 때문에 나는 속으로 다시 한번 아멘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다음 두 주 동안 다른 곳에 가르치는 약속이 있었고 또한 우리는 선교사 회의를 위해 보도우로 가야만 했다. 우리는 얼마간 지부 문제로 듀퐁 지부장을 만나지 못했다. 듀퐁 가정에 다시 초대받은 것은 거의 한 달 후였다. 듀퐁 지부장은 우리를 초대했다.

“여러분은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말했다. “아내가 교회 서적을 읽고 있어요!” 또한 그녀는 훌륭하고 진지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나는 질문에 답변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만 나에게는 너무 벅차군요. 그녀는 참으로 여러분과 다시 이야기를 나누길 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가르치는 약속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곧장 달려갔었을 것이다.

“믿을 수가 없어요!” 듀퐁 자매는 우리 모두가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이렇게 말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거지요!” 14세 된 아이는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없지요. 그리고 성경, 그것은 완전해요. 왜 우리는 이

미 갖고 있는 경전 이외에 다른 경전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신권 말인데요. 내 남편은 결코 신학교에 다닌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는 신권을 소유할 수가 있지요?”

그것은 좋은 질문이었다. 어떻게 이것을 다룬다? 나는 그랑빌 장로가 듀퐁 자매가 이야기한 것에 관해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아마도 훌륭한 것은 말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었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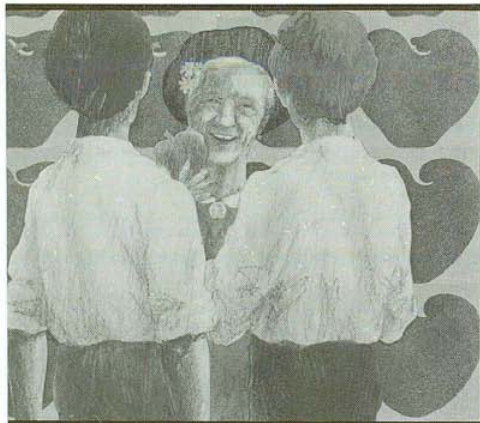
“듀퐁 자매님,” 그랑빌 장로의 부드러운 음성이 생각하는 것을 멈추게 했다. “우리는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모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한번에 하나씩 그 질문들에 답변할 몇 가지 토론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토론들을 듣고 싶습니까?”

그녀는 예라고 말했습니다.

“야, 됐구나!” 나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이것은 지금까지 이 후임 동반자의 꿈이었다.

나는 정확히 말해서 듀퐁 자매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구도자가 되었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우리의 친구가 되었으며 첫번째 토론을 열심히 들었다. 그녀는 또한 남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함께 기도했다. 그리고 그녀는 우리를 다음 일요일 저녁 식사에 다시 초대했다. 뿌레라고 불리는 감자를 얇게 잘라 짓이겨 만든 프랑스 음식을 다 먹었을 때 그랑빌 장로는 듀퐁 자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자매님은 선교사가 저녁 식사를 하다가 그의 동반자에게 버터를 좀 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에 관해 들어 보았습니까? 그 버터는 바로 그 앞에 있었지만 그는



자매님은 자매님의
접시 바로 앞에 버터가 놓여 있는데도
그 버터가 어디에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깝게 있었기 때문이죠.”

“무슨 뜻이죠?”

“간단합니다. 그것은 자매님과 복음과
의 관계와 같은 것이죠. 지난 수년 동안
남편은 자매님 바로 앞에 그것을 놓아 두
었지만 자매님은 그것이 너무 가깝게 있
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매
님은 자매님의 접시 바로 앞에 버터가 놓
여 있는데도 그 버터가 어디에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가장 알맞은 비유는 아닐
지 모르지만 그랑빌 장로는 애쓰고 있었
다. 우리가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나에게 물문경 한 권을 가져 왔
다.

“여기에 함께 사인을 합시다.” 그는
“듀퐁 자매님께 드립니다”라고 적힌 맨
앞 장을 펼치면서 말했다. 나는 그가 써
놓은 것을 보았다.

“여기 버터가 있습니다.”

다음 두 달 동안 듀퐁 자매는 그 책을
읽었다. 적어도 반 이상을 읽었다. 그리
고 다른 두 토론도 배웠으며 기도하고 남
편과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눴다. 듀퐁 지
부장님은 항상 점점 더 행복해 지는 것같
았다. 바로 그때 나는 전근 명령을 받았
다. 내 마지막 선교 지역이 될 브리터니
로 가는 것이었다. 그랑빌 장로는 그의
세번째 선임 동반자를 맞게 될 것이다.
전근 통지서가 우체국의 파업으로 늦게
도착되었기 때문에 나는 아침 첫 기차를
타야만 했다.

“그랑빌 장로님, 떠나기가 몹시 아쉽
습니다.” 나는 말했다. “우리는 그동안
이곳에서 아주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부
장님은 다시 행복하게 되었고 열의를 갖
게 되었으며 회원들은 그와 함께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몇몇 비활동
회원들과 마음이 단혀 있던 2~3명의 구
도자들을 교회로 나오게 했고 마셀라 가
족이 점차로 침례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
니다. 나는 다만 장로님께 책임만 남겨
두고 떠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듀퐁 지부장님!” 그랑빌 장로가 지
부장님을 맞아들였다. “들어 오세요” 듀
퐁 지부장은 나를 쳐다 보았다.

“전근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말했다. “내일 떠나신다구요. 내
아내는 장로님이 오셔서 작별 인사를 해
주길 바랍니다.”

짐을 꾸릴 것도 많았고 작별 인사를 나
뉘야 할 사람도 많았지만 그의 아내를 방
문해야만 할 것 같았다.

“물론 가야지요.” 나는 말했다
많은 프랑스 가정의 거실이 그러하듯이
갓이 벗겨진 전구 하나가 빛을 발하고 있

는 거실은 어두웠다. 그러나 벽지는 밤색, 노란색, 황갈색이 밝은 배합을 이루고 있었다. 듀풍 자매는 오렌지색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과자와 코코아가 놓인 쟁반이 있었다.

“안녕하세요. 장로님들” 그녀는 말을 꺼냈다. “앉으시죠. 윌리엄 장로님이 떠나신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유감입니다만 그렇습니다. 내일 아침에 떠납니다.

“그럼 여기에 새로운 선교사가 온다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테일러 장로라고 뉴욕에서 옵니다.

“그분과도 또한 친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군요.

나는 듀풍 지부장의 얼굴에 지은 미소를 볼 수가 있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편지해 주시겠어요?”

“물론이지요, 계속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약속했다. “믿어주십시오.”

“장로님들을 믿지 못한다면 누구를 믿을 수 있겠어요.”

나는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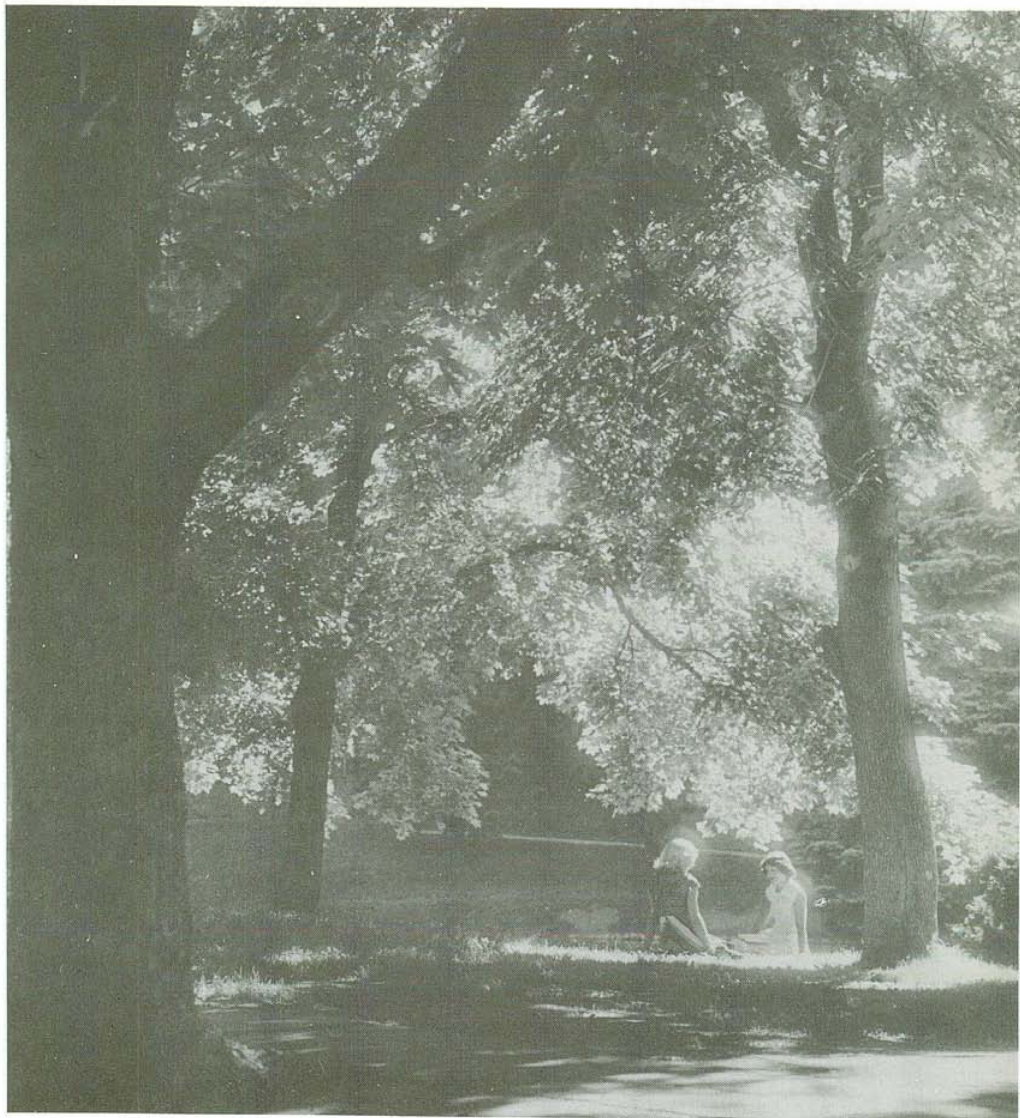
나는 계속 연락을 취했다. 특히 5개월 뒤 내가 선교 사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갔을 때는 더 자주 연락을 했다.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듀풍 지부장은 내가 써 보낸 것보다 더 많이 써 보내왔다. 우리는 사진, (나는 지금도 듀풍 가족이 손자들과 스페인 해안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는 아름다운 사진을 갖고 있다.) 크리스마스 카드, 그리고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내가 무엇을 보내더라도, 그것이 포스트 카드일지라도, 듀풍 지부장은 항상 편지를 써서 보냈다.

그는 선교사들에 관해, 특히 그랑빌 장로에 관해 소식을 듣는대로 나에게 알려주었다. 그는 항상 그의 아내가 안부를 전한다는 말도 포함시켰지만 나는 한 번도 그녀가 직접 쓴 어떤 것도 받질 못했다. 다른 선교사들의 말에 의하면 그녀는 계속 친절하게 대해 주었고 남편을 잘 내조했지만 결코 교회에 가입하지 않았다. 가끔 한번씩 나는 개인적으로 그녀에게 편지를 써서 나의 간증을 전했다. 수년 동안 나는 집에 쪽 있었다. 금주에 나는 프랑스에서 온 낯설은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주소도 낯설었고 필체도 눈에 익지 않은 것이었다. 나는 책상으로 가면서 그것을 뜯어 보았다.

“존경하는 윌리엄 장로님” 이렇게 시작되었다. “나는 그동안 여러 번 장로님께 편지를 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늘 남편이 장로님께 연락하도록 했었지요. 하지만 이제 나의 남편은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장로님이 다른 선교사들에게 전해 줄 수 있도록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그들 모두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교회 회원들이 그를 위해 장례식을 거행해 주었다는 것을 전해 주십시오.

“나는 장로님과 동반자가 나에게 죽음 후의 생활에 관해 이야기했던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결코 장로님이 나에게 이야기하려 했던 것과, 남편이 나에게 나누어 주려고 했던 것을 이해하지 못했었지만 이제야 나는 여러분들이 그것이 참되다고 확실히 믿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딸과 딸의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꼭 편지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보내 드리겠습니다, 듀풍 자매님. 꼭 보내 드리겠습니다. *

영원은 오랜 시간입니다...
그러니 친구와 함께 동행하세요.



몰모나드 오늘 복음의 메시지를 나눕시다.

엘리야와 하나님의 권능

경전 이야기에서 각색
(열왕기상 17장)



사악한 아합왕은 그 이전에 살았던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화나게 했다.

예언자 엘리야는 아합왕이 사악했으므로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는 엘리야에게 그릇 시냇가에 숨고 거기서 물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거기서 여호와는 까마귀들을 보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빵과 고기를 갖다 주어 엘리야를 돌보아 주셨다. 그러나 얼마 후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시냇가가 말라 버렸다. 그때 엘리야는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서 너를 부양할

과부를 만날 것이라는 여호와와 말씀 들었다. 엘리야가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근처에서 나무를 쭈고 있었다. 그는 그 과부를 불렀다.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그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는 이렇게 덧붙였다.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과부는 대답하기를,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 나 여호와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과부가 엘리야의 말을 따라 빵을 만들었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날 먹었다.”

과부와 그녀의 아들은 주님과 그의 예언자의 말씀을 믿음으로 해서 많은 축복을 받았다.

어느 날 과부의 아들이 병에 걸려 “숨이 끊어진지라” 과부는 깊은 슬픔에 잠겨 엘리야에게 이르길 “당신이……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그 아들을 달라하여 그를…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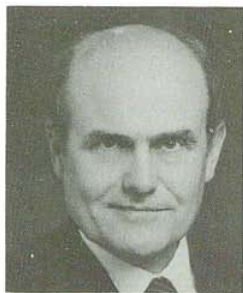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므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 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았느니라.” 과부가 기쁨에 차서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하니라. *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친구가 친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에프 엔지오 부쉬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내가 학교에 다니는 어린 소년이었을 때 오직 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나는 학교에 다니는 것을 매우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아마 선생님들이 내가 알기 원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으며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려는 것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나이 50이 된 지금에서야 나는 배우려고 노력한 후에 깨닫는 것과 견줄 만한 어떠한 영원한 기쁨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배워야 할 많은 것들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이다. 아무리 작고 어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 내 나이 11살이었을 때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었다. 부모님은 매우 의롭지는 않았지만 좋은 분들이셨다. 그분들은 나를 사랑하셨으며 내가 선택하고 순결하며 정직하게 되도록 가르치셨으며 의로운 욕망을 키우도록 도와 주셨다.



진리에 관한 의문에 항상 관심을 갖고 계셨지만 하나님은 알지 못하셨다. 그래서 그분들은 나에게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하실 수가 없었다. 나는 하나님의 실재에 관한 약간의 관심은 있었지만 결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거나 나에게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을 찾아보진 않았던 것 같다.

나는 사고로 죽음을 당한 어떤 사람을 본 기억이 난다. 처음으로 죽음을 목격했기 때문에 나는 너무 충격을 받아 이틀 동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으며 마침내 병이 들었다. 아무도 나에게 죽은 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해 줄 사람이 없었다. 아버지에게 어떤 사고가 일어날 것만 같았고 아무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디로 가는지 설명해 줄 수 없을 거라는 커다란 두려움이 마음속에 일기 시작했다.

그후, 독일의 고향에서 세계 2차 대전을 겪는 동안 나는 어머니와 4명의 누이들과 함께 독일 남부에 있는 우리 집에서 멀리 떨어진 두 개의 작고 누추한 방에서

지냈다. 우리는 많은 비행기 공습으로 도시가 파괴되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 집으로부터 피신했었다. 아버지는 군에 입대하셨기 때문에 우리들과 떨어져 계셨다.

그때 나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 무시무시한 전쟁 중에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극적인 사건들을 이해하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 2명의 누이와 함께 쓰고 있던 한쪽 방의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나는 심한 외로움을 느꼈다. 어머니와 다른 2명의 누이들이 옆 방에서 자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이 임시로 머물러 있는 집에서 잃어버려진 듯이 느껴졌고 이러한 분위기가 어색하게 느껴졌다. 사람들조차 내가 쓰고 있는 것과는 다른 사투리를 쓰고 있었다. 나는 이런 가장 두려운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내가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나는 이 의문에 답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 의문은 더 두려운 다른 의문을 갖게 했다. 영원이란 무엇일까? 나는 이 의문들에 답하기 위해 꼼꼼이 생각해 보았지만 내가 영원이란 것에 관해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 더 미궁에 빠지는 것같이 느껴졌다. 붙잡고 의지할만한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멈춤이 없이 계속해서 미궁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같이 느껴졌다. 그것은 나를 매우 두렵게 했다.

나는 아직도 희미한 달빛이 흘러 들어 오고 매 15분마다 교회 시계 종소리가 들렸던 그 방을 자세히 기억할 수 있다. 나는 새벽까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으며 매우 심한 절망감에 사로잡혀 울기 시작했다. 나는 계속 울었다.

갑자기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났다. 어떤 평안함이 나를 감쌌으며 이런 조그만 소리가 나의 영혼에 들려왔다. “너는 나

의 자녀이나라. 나를 믿으라.” 즉시 기쁨과 행복감이 나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모든 두려움, 외로움, 절망감이 따듯하고 편안한 느낌으로 바뀌었다. 그날 저녁 나는 볼 수는 없지만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관해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내가 절망을 느끼고 도움이 필요할 때 특히 분명히 알 수가 있었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갖고 계신 관심을 더 잘 이해하려면 아직 멀었지만 살아가는 동안 가끔 나는 영적인 경험을 했었다. 나는 구할 수 있는 한 하나님에 관해 쓰여진 모든 책들을 읽으려고 노력했다. 나는 다른 많은 교회에 참석했었다. 그러나 약 18년이 지난 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장로들이 내 집 문을 두드렸을 때 야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 실제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약을 맺는 방법과 어떻게 그분과 항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가를 알게 되었다. 그분이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같이 느껴졌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참된 교회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교회는 하나님을 찾고, 언젠가 다시 그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며 그의 종인 살아 계신 예언자를 통해 인도되고 있다.

나는 이 생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의 가르침에 따르는 것을 배우는 것보다 같이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

입니다.”

“위임과 시간을 계획하는 것에 관해 교회에서 훈련받은 것은 저와 가족에게 매우 가치있는 것이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저의 가족들은 시장으로 부름 받은 것이 지역 사회 봉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가족들은 함께 할 수 없었던 시간을 이해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여덟 자녀를 둔 아버지이기도하다. *

“잊혀졌던” 교회 벽화가 복원되어 제자리에 소장됨

복음의 회복을 그린 역사적으로 유명한 교회의 벽화가 20년 이상이나 버려져 있다가 복원되었다.

물론 화가 루이스 에이 램지가 그린 “회복”이라는 이 작품은 모로나이 천사가 요셉 스미스에게 금판을 전해 주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이 작품은 1923년에 솔트레이크 제11와드 건물의 벽화로 그려진 것이었다. 이 그림은 복사되어 다른 건물에도 활용되었으며 교회 서적에 폭넓게 이용되었다.

1960년에 그 건물이 부서졌을 때,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은 3평방 미터나 되는 이 벽화가 파괴되지 않도록 모든 조각을 옮기는 것을 승인했다.

그러나 그것은 옮겨져 보관된 이후 세인의 기억에서 잊혀져 고인이 된 화가의 딸이 교회 역사와 예술 및 부지 관리자인 리처드 지 오맨 형제에게 그 벽화에 대하여 이야기함으로써 비로소 다시 관심을 끌게 되었다. 오맨 형제는 여러 해 동안 찾아 헤맨 끝에 솔트레이크시티의 공업 지구의 목조 창고에 묵묵히 쌓여 있던 벽화를 찾아 내었다. 그 벽화는 심하게 손상

되어 있었다. 그림의 아랫 부분 3분의 1은 벗겨져 떨어져 나갔으며, 쥐들이 그곳에 보금자리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 이전의 벽화 재현을 연구한 브리감 영 대학교의 미술관 소장인 스코트 하스킨스씨는 그 작품을 해내기 위해 3년이 걸리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 벽화는 내구성이 강한 접착제로 붙여졌는데 그 화학 성분이 그림 물감 속으로 스며들었으며, 부서지기 쉽게 되었다. 벽에서 조심스럽게 벗겨내어진 그림은 새로운 벽에 다시 붙여졌다. 가능한 한 그림에서 벗겨낸 조각을 벽화에 다시 붙였지만, 그림이 손상된 부분은 “광택이 안나는” 안료를 그려 넣었다. 이 재생 작업의 대부분의 비용은 대관장단의 특별 승인으로 그 벽화가 다시 소장될 솔트레이크 제11와드 회원들의 기부금으로 충당되었다. *

말일성도 비행사 린드 형제 1984년 9월 우주 여행 계획



미국 항공 우주국(NASA)의 대변인에 의하면, 미국 우주 개발 계획 전문가인 말일성도 우주 비행사 린드 형제(52세)가 1984년 9월에 그의 첫 우주 여행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프렌드우드 텍사스 스테이크의 클리어 레이크 와드 회원인 린드 형제는 미국 우주 왕복선 제18호에 탑승할 예정이다. 린드 형제는 우주 왕복선 비행과 아폴로 달 탐사를 위한 지원 비행사였다. 그는 유타주 미드베일에서 출생했으며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고성능 에너지 핵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